

국립국어원 2019-01-3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60-01

[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

한국 음악 점자 규정 해설

발간사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눈이자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입니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다양한 학문, 기술, 예술 분야의 새로운 개념과 기호를 습득하고 익히는 통로라는 점에서 통일된 점자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체계화하여 1926년 ‘훈맹정음’을 발표한 이후에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자 표기의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어졌고, 시각 장애인과 점자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997년 한국 점자 규정이 최초로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7년 10여 년 만에 또 한번의 새로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은 2016년 초 한글,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 각 분야 전문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5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의 심의와 2016년 11월 국어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3월 28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음악 점자를 ‘한국 음악 점자’와 ‘서양 음악 점자’로 나누어 기존의 5개 점자 규정 분야를 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글자나 기호의 점형을 구분하여 점자 표기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점자 표기와 묵자 표기 간의 일치성을 높이고 예시를 보완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개정된 점자 규정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을 계획하여 2018년 한글과 수학, 2019년 과학과 서양 음악 분야의 규정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올해 컴퓨터와 한국 음악 분야의 점자 규정 해설서를 이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어도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점자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장의 교육 자료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해설서가 점자 교육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서가 토대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점자 관련 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음악 점자 규정 해설』이 점자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해설서를 펴내기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 위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1월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머리말

인간의 삶의 여정에는 희로애락이 있기에 고대인들도 그 변화하는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음악의 역사는 인간 생활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인들은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곱고 부드러운 소리, 맑고 깨끗한 소리를 찾아내어 정선한 것을 갈고 닦으면서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쇠붙이, 통나무, 짐승의 껍질 등과 같은 여러 도구들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수많은 악기들은 개인의 취향, 민족성, 문화의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하게 개량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왔다.

국악은 가락과 장단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독특한 음악으로, 우리 조상들의 민족성과 음악적 정서를 아름답게 담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음악이다. 국악은 오랜 세월 동안 겨레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선조들의 일상생활과 어우러져 끊임없이 계승, 발전해 왔다. 그러기에 국악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노래요 소리인 것이다. 그런 우리의 소리와 노래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가슴 속에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찾아내어 확인하고 길러 주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악을 접하고 익힌다면 오천년 문화와 화려한 예술을 소유한 우수한 민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세종 때부터 궁중 음악과 종묘 제례를 주관하던 장학원에서 관현맹 제도를 만들고,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양성하여 각종 궁중 행사나 사신 접대를 위한 만찬 등에 궁중 음악인 정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전공 분야에 따라 당악과 향악의 ‘관현맹인’으로 나뉘어 기녀들의 춤이나 노래의 반주를 하기도 했다. 궁중에 이런 맹인 음악인들을 두었던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내외법이 엄격했던 그 당시, 여인들만 있는 궁중 내연에 ‘보는 악공’들이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연주하게 한 것이고, 2) 관습도감의 창기가 사죽과 장구를 배우지 못했을 때 궁중의 잔치와 제향을 위하여 관현맹인이 임시로 반주를 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3) 실업인을 없게 하려는 복지 대책의 일환이었다(임안수, 1986).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재능 있는 맹인들이 국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점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악보의 학습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구전에 의한 도제 학습 방식에 의존했을 것이다(임안수, 2008).

그러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해방 이후의 급속한 서양 문물의 유입, 반상의 계급 사상, 민족적 열등감 및 국악 교육의 부재 등 복합된 원인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었다. 서양 음악에만 젖어 있는 현대인들 중에는 국악에 대하여 정서적 거부감이나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타났으며, 이런 사회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맹인들 또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최규봉, 1994).

조선 시대의 관현맹인 제도와 달리 현재에는 시각장애인의 음악적 능력 발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예술혼이 담긴 전통 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각 장애 학교의 국악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시각장애인 전통 음악인을 양성하여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민족 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고, 국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1994년 시각 장애 학생의 국악 교육을 위하여 한국점자연구위원회에서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만들면서 한국 음악 점자를 최초로 제정하였고, 드디어 맹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단원을 한국 음악 점자로 점역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 수록된 한국 음악 점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한국 음악 점자 제·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연구, 보완된 내용이다. 기존 정간보 등 국악 일반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예시를 보강하였다. 주법에 관한 악기별 기호에서는 해금 기호 신설, 거문고 기호 확충, 관악기 기호 확충, 가야금, 장구 등 일부 기호 재편 등 그 구성 체계와 기호를 대폭 제·개정하여 전체 공통 기호 15개, 현악기 공통 기호 6개, 거문고 기호 18개, 가야금 기호 20개, 해금 기호 29개, 관악기 공통 12개, 관악기 공통 장식음 13개, 대금·단소·소금 전용 기호 6개, 피리 기호 6개, 장구 기호 8개, 북 기호 5개, 팽과리 기호 9개, 징 기호 2개 등 149개를 개편하여 수록하였다.

이 해설서는 위의 개정 내용들을 충실히 담으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참고를 통하여 어려운 악보와 악기의 이해를 돕고 각 기호들의 용례를 제시하여 점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록에는 새 규정에 맞춰 실제로 점역한 결과를 보여주는 예제 자료를 넣어 점역 연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해설서가 개정된 한국 음악 점자 규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 음악 점자를 보다 체계화하고 우리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국악 용어 및 묵자 기호의 정비와 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국 음악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점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악 체험 기회를 마련해 전통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여야 하며 국악 이론서 및 수많은 국악곡들이 점역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 1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음악 분과
최규봉

차례

발간사	i
머리말	iii
일러두기	vi
 제1장 정간보와 5음 약보	1
 제2장 한국 음악 점자 기호 및 기보 원칙	11
 제3장 각 악기별 기호	19
제1절 전체 악기 공통 기호	19
제2절 현악기 기호	21
제3절 관악기 기호	31
제4절 타악기 기호	39
 참고 문헌	48
 [부록 1] 2017년 한국 음악 점자 규정 점역 예제	49
[부록 2] 2017년 한국 음악 점자 규정 신구 대조표	55

일러두기

1. 이 해설서는 한국 음악 점자 규정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하고, 오선보와 체계가 다른 정간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악기별로 다양한 예시를 담도록 노력하였다.
2. 이 해설서는 한국 음악 점자 규정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 관련 예시, **참고**로 구성하였다.
3. 이 해설서는 규정의 원리와 함께 한국 음악의 이해를 돕도록 상세한 해설을 담도록 노력하였다.
4. 이 해설서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 대금, 장구 등 여러 분야의 정간보의 예시를 담아서 정간보의 점자 형태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5. 이 해설서의 부록에서는 오선보와 정간보를 나란히 실어서 한국 음악이 오선보로 나타날 때의 점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6. 이 해설서도 다른 과목의 해설서와 같이 점자본에서는 목자본의 점 번호와 다르게 제시된 점형 앞에 온표(⦿)를 적어 표시하였다.
7. 이 해설서는 한국 음악 악보를 구별하는 ‘⦿⦿⦿’는 정간보나 한국 음악 악보의 시작과 끝에 적고, 악보가 연속되어 줄이 바뀌어도 중간에는 적지 않고 처음과 끝에만 적도록 하였다.

제1장 정간보와 5음 악보

제1항

12율명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12율명 중 평조의 기본 5음은 황종(黃鍾), 태주(太簇),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이나, 이것을 줄여서 黃, 太, 仲, 林, 南으로 적는다. 위의 기본 5음을 중심으로 한 그 사이 음들은 다음과 같다.

황종 (黃鍾)	대려 (大呂)	태주 (太簇)	협종 (夾鍾)	고선 (姑洗)	중려 (仲呂)
유빈 (蕤賓)	임종 (林鍾)	이칙 (夷則)	남려 (南呂)	무역 (無射)	응종 (應鍾)

2. 이 12율을 실제로 기보할 때에는 율명의 앞 글자만 적으며 그에 대한 점형은 다음과 같다.

黃(황)	⋮	大(대)	⋮	太(태)	⋮	夾(협)	⋮
姑(고)	⋮	仲(중)	⋮	蕤(유)	⋮	林(임)	⋮
夷(이)	⋮	南(남)	⋮	無(무)	⋮	應(응)	⋮

해설 우리 음악의 음이름을 흔히 ‘궁, 상, 각, 치, 우’라고 잘못 알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도하였었고 심지어는 최근에 발행된 국어사전에서조차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궁, 상, 각, 치, 우’는 중국 음악에서 쓰이는 계이름이다.

평조에서 기본 5음은 黃鍾 太簇 仲呂 林鍾 南呂인데, 이런 음이름을 국악에서는 ‘율명’이라고 한다. 율명을 악보에 적을 때나 시창을 할 때는 첫 자만 떼어 黃 太 仲 林 南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음을 가리켜 말할 때는 두 자 그대로 부른다. 음의 배열은 솔, 라, 도, 레, 미와 같으나, 실제로는 기보의 편의상 레, 미, 솔, 라, 시로 나타낸다.

다음은 율명을 나타낸 정간보를 적은 것이다. 정간보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함께 적을 수 있는 유량악보로 세종대왕이 창안하였다.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1칸을 1박으로 쳐서 정간이라 하고, 여러 정간이 모여서 오선보의 한 마디에 해당하는 것은 강, 정간이 일렬로 나열되어 오선보의 세로 한 줄이 된 형태를 각이라고 한다.

南 林	林 仲	仲	林 仲
--------	--------	---	--------

<12울의 제자 원리>

울명	점자	제자 설명
黃鍾	⦿	“황종”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나”를 선택
大呂	⦿	“대려”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ㄷ”를 선택
太簇	⦿	“태주”를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ㄱ”를 선택
夾鍾	⦿	“협종”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초성 ㅎ(⦿)을 종성 ㅎ(⦿)으로 바꾸고 여기에 종성 ㅂ(⦿)을 혼합
姑洗	⦿	“고선”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ㄴ”를 선택
仲呂	⦿	“중려”를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ㄷ”를 선택
蕤賓	⦿	“유빈”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ㅍ”를 선택
林鍾	⦿	“임종”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ㅣ”를 선택
夷則	⦿	“이척”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ㅣ”를 택하고 종성 ㄱ(⦿)을 택하여 초성 ㄱ(⦿)으로 바꾼 다음 이들을 혼합
南呂	⦿	“남려”를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ㅈ”를 선택
無射	⦿	“무역”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초성 ㅁ(⦿)을 선택하여 종성 ㅁ(⦿)으로 바꾸고 “ㄷ”(⦿)을 선택한 다음 이들을 혼합
應鍾	⦿	“응종”을 이루고 있는 한글 요소들 중에서 “ㅡ”를 선택

다) 주법에 관한 각종 기호의 제·개정 원칙

① 기능상 같은 의미이면서도 묵자 기호의 통일성 결여로 인해 기호명이나 기호 모양이 악기별로 다를 경우에도 점자 기호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형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타악기 묵자 기호명(구음)은 가급적 통일하되, 실제 용례가 인정되는 것은 괄호 안에 제시해 주도록 한다.

③ 각종 기호는 제자 원칙에 근거하여 점형을 정하고 12울과는 절대 중복을 피하며 악기별 기호 간에도 가급적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④ 점자 기호의 제자는 가급적 1칸 안에서 정하도록 노력하되 점형의 한계 때문에 1칸으로 제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칸으로 제자한다.

국악의 한 음역(옥타브) 안에는 기본 5음을 포함하여 12음이 있다. 예로부터 한국 음악에서는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누어 사용하여 왔으며, 이런 12반음들을 12올려 혹은 간략하게 12올이라고 했다. 이 12올은 각각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과 같은 고유한 율의 이름 즉 율명을 지닌다. 이것은 서양 음악의 12반음 체계와 비교되며 연주되는 음악의 편성 악기에 따라 황종의 음높이는 C가 되기도 하고 E^b이 되기도 한다. 한 옥타브 내의 12올려는 양률(陽律)에 속하는 6올과 음률(陰律)에 속하는 6려로 구분한다. 6올에는 12올 가운데 홀수 번째인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이 속하고, 6려에는 12올 가운데 짝수 번째인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려, 응종이 속한다.

제2항

각 성부의 음역 표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배탁성(하배성, 𪛗)은 12올에 사람인변(亻) 둘을 붙이며 점자에서는 𪛗으로 적는다.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2. 탁성(배성, 亻)은 12올에 사람인변(亻) 하나를 붙이며 점자에서는 𪛗으로 적는다.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3. 중성(정성)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으며 점자에서는 기본 음역 표시로서 𪛗으로 적는다.

黃	𪛗	大	𪛗	太	𪛗	夾	𪛗
姑	𪛗	仲	𪛗	𪛗	𪛗	林	𪛗
夷	𪛗	南	𪛗	無	𪛗	應	𪛗

4. 청성(𪛗)은 12올에 물수변(氵) 하나를 붙이며 점자에서는 𪛗으로 적는다.

潢	⋈	汰	⋈	汰	⋈	浹	⋈
沽	⋈	沖	⋈	漈	⋈	淋	⋈
洩	⋈	漣	⋈	漙	⋈	漚	⋈

5. 중청성(𣶒 𣶒)은 12울에 물수변(𣶒) 둘을 붙이며 점자에서는 ⋈으로 적는다.

𣶒潢	⋈	𣶒汰	⋈	𣶒汰	⋈	𣶒浹	⋈
𣶒沽	⋈	𣶒沖	⋈	𣶒漈	⋈	𣶒淋	⋈
𣶒洩	⋈	𣶒漣	⋈	𣶒漙	⋈	𣶒漚	⋈

해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역을 구분하여 기보하는 현행 방법은 《악학궤범》에 따라 일부 용어만 바꾸어 쓰고 있다. 즉, 중성(또는 정성)과 청성은 그대로 쓰고 청중청(淸中淸)은 중청성(重淸聲)이라 하여 삼수변 2개를 붙인다. 탁성을 배탁성(倍濁聲)이라고 하면 탁중탁(濁中濁)은 배배탁성(倍倍濁聲)이 되어 번거로우므로 탁성 또는 배탁성은 탁성 또는 배성(倍聲)이라 하여 인변을 붙이고, 탁중탁(濁中濁)은 배탁성(倍濁聲) 또는 하배성(下倍聲)으로 인변 2개의 생략형으로 두인변을 붙여 기보하도록 약속한 것이다.

참고 12울명의 한자를 풀이하고 가야금을 기준으로 그 음역과 박자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울명 풀이>

黃鍾 (누르 황, 쇠북 중)	大呂 (큰 대, 법칙 러)	太簇 (클 태, 모일 주)	夾鍾 (가질 험, 쇠북 중)
姑洗 (시어머니 고, 정결한 선)	仲呂 (버금 중, 법칙 러)	蕤賓 (드리워질 유, 손 빈)	林鍾 (수풀 임, 쇠북 중)
夷則 (동녘 오랑캐 이, 법칙 칩)	南呂 (남녘 남, 법칙 러)	無射 (없을 무, 싫을 역)	應鍾 (대답할 응, 쇠북 중)

제3항

정간보의 시가(時價)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정간(井間)의 칸 수는 12율의 다음 칸에 수표를 뺀 숫자로 나타낸다. 다만, 음이 1박일 때에는 그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다. 따라서 숫자가 붙지 않은 12율은 모두 1박으로 읽는다.

::: 사람인변 하나가 붙은 탁중려 3박
::: 물수변 하나가 붙은 청성 임종 4박
:: 물수변 둘이 붙은 중청성 남려 1박

2. 1박 미만의 소박을 표시할 때에는 1정간을 1박으로 하여 12등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간 내의 음의 점유 범위(음의 길이)를 그 분자로 하여 이를 해당 음의 다음 칸에 수표를 적지 않고 숫자만 내려 적는다.

::: 청성 황종 9/12, 즉 3/4박의 길이
::: 탁성 임종 6/12, 즉 1/2박의 길이
::: 중성 남려 4/12, 즉 1/3박의 길이
::: 청성 중려 3/12, 즉 1/4박의 길이

해설 음의 길이 즉 박을 나타내는 정간의 칸 수를 한국 음악 점자에서는 12율의 다음 칸에 수표를 뺀 숫자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음이 비어 있는 다음 칸 없이 1칸에만 쓰여 있을 때는 숫자 1을 반드시 생략해야만 독보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1박 미만의 소박을 표시할 때에는 1정간을 1박으로 하여 12등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간 내의 음의 점유 범위(음의 길이)를 그 분자로 하여 이를 해당 음의 다음 칸에 수표를 적지 않고 숫자만 내려 적는다.

따라서 정간보를 점자로 적을 때에는 소박의 정간 점유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중간 음역(중성)	10	黃 △	반박을 나타낸 경우
	11	太 △	
	12	仲 △	

제4항

5음 약보는 어떤 선법의 중심음을 宮(궁)으로 표시하고 이 궁을 중심으로 음계를 따라 한 음 위 음은 上一(상일), 두 음 위 음은 上二(상이) 등의 방법으로 上三(상삼) 上四(상사) 上五(상오)까지 나타내고, 한 음 아래 음은 下一(하일), 두 음 아래 음은 下二(하이) 등의 방법으로 下三(하삼) 下四(하사) 下五(하오)까지 나타낸다.

해설 오음 약보는 오음을 황종(C), 태주(D), 중려(F), 임종(G), 남려(A) 등 율명으로 기보하지 않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기보한 악보이다.

참고 오음 약보(五音略譜)는 세조 때 정간보를 고쳐 만든 유량악보(有量樂譜)의 하나이다. 세종 때의 32간에다 율명을 적어 넣는 기보법을 고쳐 16간으로 하고, 거기에 오음(五音)을 약자(略字)로 적도록 한 것이다. 오음 약보는 1행을 16간으로 굿고 3·2·3·3·2·3의 여섯으로 잘게 베틀(綱)하였는데, 이 1행 3·2·3·3·2·3의 간을 통틀어 말할 때는 육대강(六大綱, 여섯의 큰 베틀라는 뜻)이라 한다.

제5항

5음 약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하일(下一)	⦿	궁(宮)	⦿	상일(上一)	⦿
하이(下二)	⦿			상이(上二)	⦿
하삼(下三)	⦿			상삼(上三)	⦿
하사(下四)	⦿			상사(上四)	⦿
하오(下五)	⦿			상오(上五)	⦿

해설 오음 약보는 궁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하1, 2, 3, 오른쪽에 상1, 2, 3으로 되어 있는데, 5음 약보의 점자 표기는 위에서와 같이 ‘궁(宮)’을 종성 이음인 ‘⦿’으로 하고, ‘하(下)’를 초성 히음인 ‘⦿’으로, ‘상(上)’을 사의 약자인 ‘⦿’으로 하여 수표를 뺀 내림 숫자를 그 다음에 붙여 줌으로써 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음 약보는 궁(宮)을 중심으로 위로는 上一·上二·上三·上四·上五·上六으로 하고, 아래로는 下一·下二·下三·下四·下五로 기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 “궁(오음 약보의 궁(宮)을 뜻함)이라 함은 가성(歌聲)의 조(調)로써 궁(宮)을 삼은 것이고, 궁조(宮調, 즉 中國 五調 중의 宮調)의 궁(宮)이 아니다. 궁(宮)으로부터 위로 첫째 소리는 ‘上一’이 되고, 둘째 소리는 ‘上二’, 셋째 소리는 ‘上三’, 넷째 소리는 ‘上四’, 다섯째 소리는 ‘上五’가 된다. 궁(宮)으로부터 아래로 첫째 소리는 ‘下一’, 둘째 소리는 ‘下二’, 셋째 소리는 ‘下三’, 넷째 소리는 ‘下四’, 다섯째 소리는 ‘下五’가 된다. 높은 소리는 ‘上’이 되고 낮은 소리는 ‘下’가 되는데, ‘上五’ 이상은 너무 높고, ‘下五’ 이하는 너무 낮아 모두 쓸 수 없다.”

이런 기보 방법에 임종(G) 평조와 임종(G) 계면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임종 척자(尺字, 임종을 工尺譜로 기보할 때는 尺이 됨) 평조(平調)는 임종(G)이 궁(宮)이 되고, 남려(A)는 ‘上一’, 청황종(c)은 ‘上二’, 청태주(d)는 ‘上三’, 청고선(e)은 ‘上四’, 청임종(g)은 ‘上五’가 되는데, ‘上五’는 소궁(小宮)이라고 한다. (임종을 궁으로 할 때) 고선(E)은 ‘下一’이 되고, 태주(D)는 ‘下二’, 황종(C)은 ‘下三’, 탁남려(A)는 ‘下四’, 탁임종(G)은 ‘下五’가 되는데, ‘下四’·‘下五’는 배탁성(倍濁聲)이라고 한다.

임종 계면조(界面調)는 임종(G)이 궁이 되고, 무역(B♭)은 ‘上一’, 청황종(c)은 ‘上二’, 청태주(d)는 ‘上三’, 청중려(f)는 ‘上四’, 청임종(g)은 ‘上五’가 되는데, ‘上五’는 소궁(小宮)이라고 한다. 중려(F)는 ‘下一’, 태주(D)는 ‘下二’, 황종(C)은 ‘下三’, 탁무역(B♭)은 ‘下四’, 탁임종(G.)은 ‘下五’가 되는데, ‘下四’와 ‘下五’는 배탁성이라고 한다.

<조의 유형 및 용례>

가) 선법으로서의 조(調)

- ① 한국 음악의 선법명: 평조(平調), 계면조(界面調)
- ② 중국계 아악의 선법명: 궁조, 상조, 각조, 치조, 우조

나) 조명(key)으로서 조

- ① 총괄 명칭으로서 조명: 낙시조(樂時調, 또는 평조), 우조(羽調)

다) 가락으로서의 조

김선조(金善調), 풍입송조(風入松調), 만전춘조(滿殿春調), 이수경조(李壽卿調) 등.

라) 속도와 관계되는 조(調)

만조(慢調, 늦은 조), 평조(平調, 보통 속도의 조), 삭조(數調, 빠른 조), 진(양)조(긴 조)

마) 성역(聲域)과 관계되는 조(調)

평조청(계면청과 엇청과 비교됨), 평시조(平時調, 지름시조 또는 頭舉時調, 중허리시조 또는 中舉時調와 비교됨), 평농(平弄, 엇농(懿弄)과 비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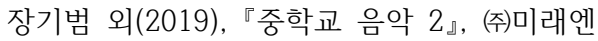
바) 풍(風; Style)으로서 조

시조에 있어서 경조(京調, 京制), 영조(嶺調, 嶺制), 완조(完調, 完制), 염불조, 타령조, 육자백이조, 호령조, 드령조, 풍월조 등

<현행 선법>

한국 음악에는 평조(平調)와 계면조(界面調)의 두 가지 선법이 있다. 그러나 조선 왕조 말엽에 이르러서는 평조는 그대로 5음 음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계면조는 대부분 5음 음계에서 3음 음계 또는 4음 음계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악(정악) 곡 중에서도 5음 음계로 된 평조에 속하는 곡은 가곡(歌曲)의 우조(羽調, 즉 平調), 영산회상(靈山會相) 중 군악(軍樂),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중 보태평(保太平), 길군악,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 등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가곡의 계면조, 종묘제례악 중 정대업(定大業), 영산회상(靈山會相), 평조회상(平調會相), 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 정읍(井邑), 동동(動動) 등 그 대부분은 계면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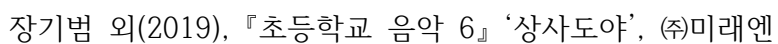
한편 판소리를 비롯하여 시나위,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긴 잡가(12잡가), 각 도의 민요, 범패(梵唄), 무악(巫樂)에 이르기까지 5음 음계인 평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고, 그 대부분은 변형된 계면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음악이 3음 음계 또는 4음 음계적인 음악이기는 하지만 가곡, 가사, 시조 등을 비롯한 잡가, 민요, 무악(巫樂) 등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기범 외(2019), 『고등학교 음악』, (주)미래엔

• • • • •

- 12 -



기본 음역은 \therefore 으로 적되, 첫 음에만 표시하고 다른 길로 이행할 때까지는 이를 생략한다.

黃太仲林南 濱



해설 물수변이나 사람인변이 붙지 않은 12율(중성)에 대하여 한국 음악 점자에서는 위, 아래 음역 표시가 생략된 음들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본 음역을 나타내는 표를 정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장기범 외(2019), 『초등학교 음악 6』 ‘닐리리야’, (주)미래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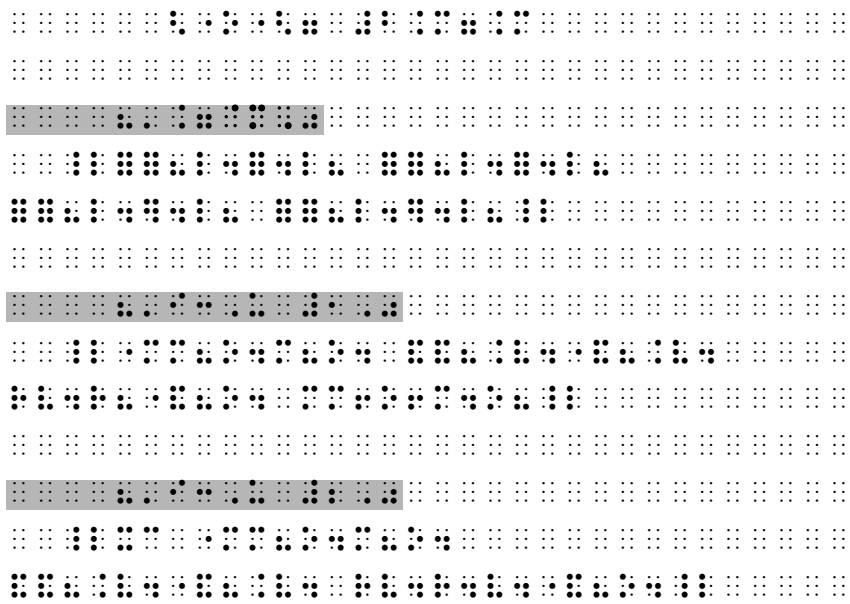
제10항

정간보나 오선보로 기보된 국악곡을 점역할 때, 그 중에 있는 각종 한국 음악 기호는 한국 음악 기호 표 안에 적는다. 다만, 정간보에서 표기된 전성 표, 퇴성 표, 추성 표, 뜰 표, 싸랭 표 등 독보에 혼란이 없는 기호들은 한국 음악 기호 표를 생략하고 적을 수 있다.

해설 정간보에서 5(전성 표), 艮(퇴성 표), ㄷ(추성 표), ✓(뜰 표), ㄱ(싸랭 표), ㄴ(슬기둥 표) 등은 다른 기호의 점형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국악 기호 표를 생략하고 12율의 박자표 다음 칸에 적는다.



단소 ②			단소 ①			아 리 랑 2 종 주
	△		仲		①	
			— 林		① — 	
			仲 — 林		① — 	
	仲		無		①	
	— 林		— 潢		① — 	
	仲 — 林		無 — 潢		① — 	
	無		汰		①	
	— 潢		潢 汰 —		① — 	
	無 — 潢		無 — 林		○ — 	
	汰		仲		①	
	潢 汰 潢		— 林		① — 	
	無 — 林		仲 林 —		○ — 	



장기범 외(2019), 『고등학교 음악』 ‘아리랑 2중주’, (주)미래엔

제3장 각 악기별 기호

제1절 전체 악기 공통 기호

기호	점형	설명	기호	점형	설명
慢(만)	⋮⋮	느린 속도로	中(중)	⋮⋮	보통의 속도로
數(삭)	⋮⋮	빠른 속도로	ㄱ·ㄱ·ㄴ	⋮⋮	점점 느리게
ㄱ·ㄱ·ㄴ	⋮⋮	점점 속하게	ㄱ·ㄴ	⋮⋮	조금 느리게
ㄱ·ㄴ	⋮⋮	조금 속하게	ㄴ·ㄴ	⋮⋮	본래의 속도로
∨ (특강표)	⋮⋮	특히 강하게 내라는 표			
ㄹ	⋮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ㄹ	⋮⋮	더욱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ㄴ	⋮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ㄴ	⋮⋮	더욱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	⋮	점점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	⋮	점점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해설 2006 한국 점자 규정 국악 기호에는 전체 악기 공통 기호가 없었으나 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서는 주법에 관한 악기별 기호를 전체 악기 공통 기호 및 현악기 공통 기호와 관악기 공통 기호로 전치하였고, 해금 기호 및 일부 기호 신설, 일부 현악기 기호와 타악기 기호 삭제, 점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대폭적인 새 점형 대체, 상이한 유사 기능의 묵자 기호의 점형 통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제·개정하였다.

한국의 전통 악기에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의 현악기와 대금, 단소, 피리 등의 관악기 및 장구, 북, 징, 팽과리 등의 타악기가 있다.

위의 기호들은 각 악기의 연주곡에서 속도 및 셈여림 표시로 많이 쓰인다.

참고

가) 농현법(弄絃法)

① 아악(계면조의 음악)

진폭을 좁게 흔들되, 중심음에서 4도 또는 5도 상행할 때 그 중심음에 나온다. 1박일 때는 처음부터 흔들며 2박 이상일 때는 그 끝 박만 흔들다.

② 민속악(계면조의 음악)

전라도 지방의 음악에서는 진폭을 넓게 흔들되, 중심음에서 4도 또는 5도 상행할 때 그 중심음에 나온다. 1박일 때 처음부터 격렬하게 흔들고 2박 이상일 때도 처음부터 격렬하게 흔들다. 2분의 1박, 3분의 1박 등 그 시가가 짧을 때의 요성은 1박보다는 격렬하지 않지만 가곡의 편(編) 이하의 요성 정도이다. 서도 지방의 음악에서는 중심음에서 4도 또는 5도 위의 음에서 요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나) 전성법(轉聲法)

① 아악(계면조의 음악)

전성법은 대개 요성과 같이 중심음에서 4도 또는 5도 상행할 때 그 중심음에 나온다. 요성은 1박 이상의 시가를 가졌을 때 사용하고, 전성은 2분의 1박 또는 3분의 1박 등의 짧은 박일 경우에 쓰인다.

② 민속악(계면조의 음악)

아악과 같다.

다) 퇴성법(退聲法)

① 아악(계면조의 음악)

중심음의 5도 위의 음을 내리되, 2도 또는 5도 하행할 때 쓰는 기법이다. 일단 제 음을 낸 다음, 반음이나 온음을 천천히 끌어내린다. 단, 음의 시가가 짧을 때는 급히 끌어내리고, 2박 이상일 때는 그 끝 박에서 끌어내린다.

② 민속악(계면조의 음악)

전라도 지방의 음악에서는 아악과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아악에서와 같이 제 음을 낸 뒤에 끌어내리지 않고, 반대로 제 음보다 약간 높은 소리로 낸 다음, 제 음까지 급히 끌어내리며, 아주 가벼운 요성(현악기는 농현)을 낸다. 이를 꺾는 소리(꺾는 목)라고 한다.

제2절 현악기 기호

제13항

현악기 공통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추성 표	음의 끝부분을 밀어 올리는 표
	∴	퇴성 표	음의 끝부분을 흘려 내리는 표
	∴∴	겹전성 표	음을 세게 구르는 표
	∴	전성 표	음을 살짝 구르는 표
	∴	굵은 농현	음을 굵게 떠는 표
	∴	가는 농현	음을 가늘게 떠는 표

해설 위의 기호들은 정악, 민속악 등의 연주 시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에 두루 쓰이는 기호들이다. 가야금을 중심으로 이 기호들의 주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추성 표는 탄현한 음을 왼손으로 안쪽 바깥쪽 줄을 눌러 음의 끝부분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퇴성 표는 탄현한 음의 안쪽 바깥쪽 줄을 누른 상태에서 힘을 적당히 가볍게 늦추었다가 원래대로 눌러줌으로써 음의 끝부분이 흘러 내려왔다가 본래 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성 표는 탄현한 음의 안쪽 바깥쪽 줄에 왼손으로 비교적 빠르게 본래보다 세게 눌렀다가 본래의 압력으로 돌아옴으로써 음이 살짝 구르는 듯 끌어 올렸다가 돌아오는 것이며, 겹전성 표는 음폭이 보다 크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을 세게 구르는 것이다. 농현은 탄현한 음을 왼손으로 안쪽 바깥쪽 줄을 본래 압력보다 세게 주었다가 본래의 압력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반복함으로 음을 떨게 하는 것으로서 서양 음악의 비브라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비브라토보다는 음의 떨림이 느리고 깊은 편이다.

제14항

거문고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술대 기호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뜰	술대를 안으로 향해 줄을 떠서 소리 내는 표
	⋮⋮	다앗다앗, 뜰뜰	빨리 붙여서 소리 내야 하는 음을 술대로 뜰어서 '뜰'로 내거나 '당뜰'로 소리 내는 표
	⋮	대점	줄 위로 술대를 올려서 세게 내리쳐 소리 내는 표
,	⋮	중점, 혹은 이겨 친다	술대로 줄을 위에서 세게 눌러 타는 표(위로 들어 치지 않고)
上→下	⋮⋮	상하	괘상청에서 무현까지 술대로 굽어 내리는 표.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 표시로 쓰기도 함.
下→上	⋮⋮	하상	무현에서 괘상청까지 술대로 굽어 내리는 표. 위로 향하는 화살표 표시로 쓰기도 함.
子→下	⋮⋮	자하	유현에서 무현까지 술대로 굽어 내리는 표. 유현의 음을 짚고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 표시로 쓰기도 함.
下→子	⋮⋮	하자	무현에서 유현까지 술대로 굽어 내리는 표. 유현의 음을 짚고 위로 향하는 화살표 표시로 쓰기도 함.
└	⋮	슬기둥, 살당	문현과 유현 또는 문현에 유현을 거쳐 대현까지 긋는 표. '슬'과 '살'같이 구음이 다른 이유는 마지막 음이 대현의 '둥', 유현의 '당'인데, 두 줄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해진 구음이 다르다.
└•	⋮	싸랭	문현을 처음에 세게 내고 유현을 급속히 긋는 표. 뒤에 붙는 음에 따라서(유현의 기준) '쌀당, 쌀둥'과 같이 붙인다.(된 발음)
└!	⋮⋮	살당_	가곡 반주 시 1/3과 2/3을 나타낼 때 쓰는 표
└≡	⋮⋮	살_당	가곡 반주 시 2/3와 1/3을 나타낼 때 쓰는 표

2. 왼손 기호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	----

自	⦿	자출	검지나 엄지로 줄을 치거나 뜯는 표
小	⦿	소지	소지로 뜯는 표(가곡에 해당한다)
ㄴ	⦿⦿	상하 농현	그 음을 위에서 아래로 떠는 표
~~~~~	⦿	가는 농현	1/4음 꺾어서 소리 낸 후 가늘게 떠는 표
^	⦿⦿	꺾기	꺾는 음. 본음보다 반음 높이 내는 표
ㄱ	⦿⦿	제자리 꺾기	본음보다 한 음 높이 낸 후 제 음을 속히 내는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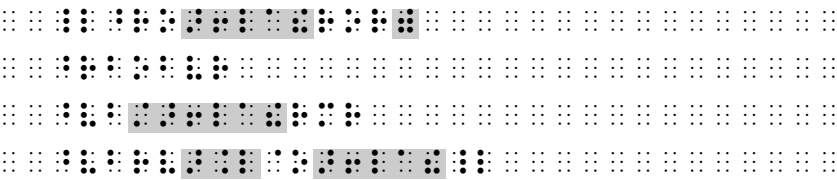
**해설** 2006년 한국 점자 규정의 국악 기호에는 정악 거문고에 한하여 기호가 있었으나 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 국악 기호에는 전체 거문고 기호를 술대 기호와 왼손 기호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술대는 오른손으로 쥐고 거문고의 각 줄을 뜯는 동그란 작은 막대기로서 제14항의 1번은 술대로 탄현하는 각종 주법을 나타낸 것이다.

거문고는 6줄로 되어 있으며 안쪽 외에도 음의 높낮이를 변화시키는 꺾이 있다. 꺾이는 기타의 프렛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납작한 나무판이 거문고의 몸통 위에 세로로 세워져 있다. 위의 기호들은 안쪽과 꺾이를 중심으로 왼손으로 연주하는 다양한 주법들이다.

다음 거문고 정간보에서는 느나, 뜯, 전성 표, 싸랭, 자출 표 등이 쓰였는데, 느나 기호는 해금 기호를 준용하였다. 연속적으로 국악 기호가 나올 때는 앞의 기호에서 ⦿으로 닫지 않고 마지막 기호 사용 후 ⦿으로 닫는다. 다만 ‘느나’의 경우에는 한 정간을 차지하였으므로 시가 표시를 하였다.

横		横 ㄱ		ㄱ		ㄱ	
						ㄱ	
ㄱ		ㄱ	✓	ㄱ		ㄱ	✓
横自		ㄱ				ㄱ	
ㄱ		仲		横		ㄱ	
ㄱ	✓	ㄱ		ㄱ		ㄱ ㄱ	



김기수·구윤국(1998), 『현금정악』 ‘중령산’, 은하출판사.

제15항

가야금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산조 가야금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꺾기	본음보다 단2도 살짝 높였다가 들어 올리는 표

		뒤 내림	본음보다 낮은음으로 흘러 내리는 표(퇴성 표)
		올림	본음보다 높은음으로 휘어 올리는 표(추성 표)
		내려 떨기	연결된 음을 농현으로 떨면서 내리는 표
		한 줄 누름	본음보다 한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두 줄 누름	본음보다 두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본줄	본래의 줄로 돌아가는 표
		왼손 엄지	왼손 엄지로 연주하라는 표
		첫 음 올림	첫 음의 여음으로 처리하라는 표

## 2. 정악 가야금

### 가. 오른손 기호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모지	모지로 타는 표
o		튀김	모지와 식지를 둥글게 하여 식지 손톱으로 현을 튕겨 내는 표
		장지	장지로 타는 표
		싸랭	장지로 음을 아랫소리를 속히 거쳐 무지로 제 음을 내는 표
		슬기둥	식지·장지·모지의 순으로 타되 현의 위치에 따라 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난다.
✓		뜰	모지 손톱 등으로 떠서 내는 표로서 늘 모지 표 다음에 오는 탄법이다.
8		연튀김	튀김 표의 복수형으로 소지·무명지·장지·식지를 연이어 튕겨 낸다.

나. 왼손 기호

기호	점형	명칭	설명
ㄱ	::	전성	음을 구른다.
艮	::	퇴성	음을 흘려 내린다.
ㄷ	::	추성	현을 잡고 소지로 약간 눌러서 음을 밀어 올린다.
ㄹ	::	뜯동	퇴성이나 추성 때와 같이 현을 잡고 오른손과 동시에 현을 눌러 발현한다.

**해설** 2006 한국 점자 규정에서는 산조 가야금 기호를 왼손 수법과 오른손 수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서는 오른손 수법인 손가락 표를 생략하고 위와 같이 새로운 기호로 정리해서 수록하였다.

오른손 기호와 왼손 기호로 나누어 수록한 위의 기호들은 대부분 정악 가야금에 활용되지만 오른손 기호 중 모지로 타는 표, 튕김, 연튕김 등과 왼손 기호 중 전성 표 등은 산조 가야금에서도 쓰는 주법이다.

다음 가야금 정간보에서 기호 ‘-’는 모지 표로서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다.



	仲		林		無	-
			一 仲	5		
	黃		林		林	
	仲	-	潢	-	潢	-
	黃		林		林	
	黃	。	潢	-	潢	-
	仲		無	-	仲	
			一 林	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충웅(2017), 『가야금 정악보』 ‘가락덜이’, 은하출판사.

제16항

해금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잉어질 표	본음에서 본음을 속히 끊어 치고 아래 음을 내는 표

		침표	시가만큼 쉬라는 표
		흔드는 표	음을 가늘게 흔들어 내는 표
		늘임표	본래의 시가보다 2배 이상 늘이는 표
		끊는 표	그 음만 소리를 짧게 끊거나, 잠깐 쉬는 표
		미는 표	본음에서 그 음을 위로 밀어 올리는 표
		흘림 표	본음에서 그 음을 아래로 흘려 내리는 표
		요성 표	본음과 한 음 위 음을 두 번 당겼다 놓았다 하는 표
		굴림 표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눌러서 내는 표
		반복 표	표가 붙은 자리에서 표까지 반복하라는 표
		덧길이·반길이 표	이 표가 붙는 자리에 따라 시가를 가감하는 표
		쿡 치는 표	그 음만을 특히 세게 쿡 치는 표
		니레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니라	두 음 위 음을 짧게 내고, 본음을 내는 표
		노네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노니로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짧게 내는 표
		나니레 다니레	한 음 아래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	빼는 표	활대를 좌에서 우로 당기는 표
—	⠠⠠	넣는 표	활대를 우에서 좌로 미는 표
⠠⠠	⠠⠠	무명지 표	식지를 무명지 위치로 내려잡는 표
┆	⠠⠠	제자리표	내려 잡았던 위치에서 다시 제자리로 올려 잡는 표
┆	⠠	니	한 음 위 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	⠠	리	두 음 위 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	⠠	노	한 음 아래 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ㄴ	⠠	니나	한 음 위 음과 본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ㄷ	⠠	느나	한 음 아래 음과 본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ㄴ	⠠	니르	한 음 위 음과 두 음 위 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ㄴ	⠠	노라	한 음 아래 음과 두 음 아래 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ㄴ	⠠	니네라	두 음 위 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ㄴ	⠠⠠	나니나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ㄴ	⠠⠠	나느나	본음,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3등분하여 내는 표

다음의 해금 정간보에서는 활대 표, 미는 표, 요성 표 등이 쓰였는데, ‘요성 표’는 한 정간을 차지하였으므로 시가 표시를 하였다. 활대 표는 장식음과 달리 기호를 전치해야 하고, 점자보에서 강 안의 울명을 전부 적지 못하고 줄이 넘어갈 경우에는 줄 끝에 ∷을 적어 준다.

太	丨	仲	一	汰	一
黃 _一 太	一	メ			
林	丨	南	丨	潢 _一 南	丨
一 _一 太				汰 _一 潢	一

- 30 -

### 제3절 관악기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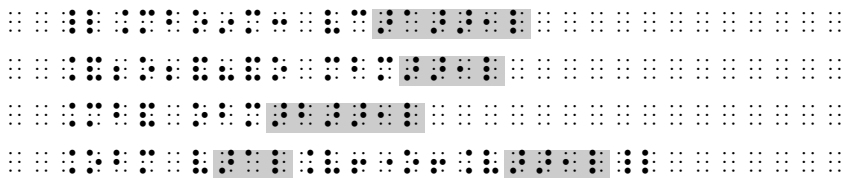
#### 제17항

관악기 공통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로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로'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	한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나	한 음 위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나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니	한 음 위,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노라	한 음 아래,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레나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로나	한 음 위,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나니나	한 음 아래, 본음, 한 음 위,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니르나니	한 음 위,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다음 정간보에서 대강 안의 박자는 1정간마다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점자로 적을 때는 실선으로 구분된 대강마다 1칸씩 띄어 쓴다.

淋		沖		無淋無 一		沖
沖		無		淋		淋 一 沖
潢^		淋		沖		潢^
一 林						
潢		沖^		沖		



- 32 -

## 제18항

관악기 공통 장식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니레	한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	니라	두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	노네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	너네	두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	노니로	본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ㄴ	∴	네로네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	나니르	한 음 아래,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ㄴ	∴	로니로	두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I	∴	느니-르	한 음 아래 음, 본음, 한 음 아래 음인데, 한 음 아래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H	∴	니루-니	한 음 위 음, 본음, 한 음 위 음인데, 한 음 위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	드로니르	본음, 한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ㄴ	∴∴	나니나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ㄴ	∴∴	나느나	본음,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해설** 위의 장식음은 구음으로도 쓰이는 기호로서 대금, 피리, 단소 등의 연주에 거의 공통적으로 활용된다.

다음 대금 정간보에서 쓰인 니레나, 니나, 노라, 침표 등은 2분의 1정간 또는 4분의 1정간을 차지하여 시가를 표시하였는데, 내림 숫자로 쓰인 시가 표시에 유의해야 한다.

林仲 無 _工		林 ^人 h		潢 _h		無
仲		仲		林仲 無 _工		無 ^人 - 林
仲 林 _△		林 ^人 - 仲		仲		潢 - 林
潢 - _ㄴ		潢 ^人 △		林潢		潢 ㄴ
仲 - 無		仲 h		潢 ^人		仲 - 無
林 △		仲		- 無 _△		林 △



신용문(2014), 『대금 정악보』 ‘염불도드리’, 은하출판사.

## 제19항

제19항 대금·단소·소금 전용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숨표	숨을 쉬라는 표로 짧은 순간에 빨리 숨을 마신다.(숨표의 길이는 앞의 중(仲)에 포함됨)
△	⠠⠠	쉽표	시가(時價)만큼 쉬는 표
▲	⠠⠠⠠	끊는 표	그 음을 1/2 길이로 짧게 끊는 표
·	⠠⠠⠠	튀김 표	혀로 통기거나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하며, 주문이 없는 한 제 박의 길이로 연주한다.
S	⠠⠠⠠	떠이어 표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 임무(淋濼)를 빠르게 앞꾸밈음으로 붙이고 임(淋)을 연주한다.
V	⠠⠠⠠	특강 표	그 음을 특히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해설** 현행 한국 점자 규정에서는 정악 대금과 단소 기호 중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는 기호는 삭제하고 위와 같이 대금·단소·소금 전용 기호로 간추리는 한편 튀김 표와 떠이어 표를 추가 제정하였다. 다음은 소금 정간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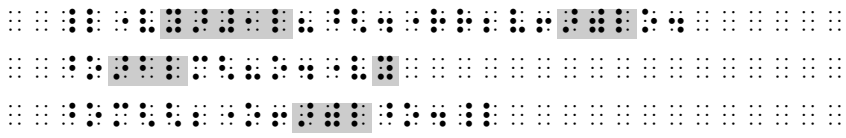


6	⠠⠠⠠	시루 표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올 때 중간 음정을 강하게 짚고 내려온다.
9	⠠	루러 표	일종의 굴림표로서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올라갈 때, 혹은 같은 음을 연주할 때도 사용되는 연주법이다.
ㄸ	⠠⠠⠠	요성 표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한번 요성을 한다.
ㄸ	⠠⠠⠠	겹요성 표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두 번 요성을 한다.
ㄴ	⠠⠠⠠	하음 표	표기되어 있는 음을 낮게 내라는 표

**해설** 2006 한국 점자 규정의 국악 기호에는 피리에 관한 기호가 없었으나 현행 점자 규정에서는 관악기 공통 기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된 피리 악상 기호를 찾아서 점자로 추가 제정하였다.

다음 피리 정간보에서 쓰인 기호는 퇴성 표, 요성 표, 루러 표, 니라 등이다.

ㄸ		ㄸㄸ		黃 _ㄴ
仲		仲		ㄸ _ㄴ ㄴ
備		備 _ㄴ ㄸ		太
9林備 _ㄴ ㄸ		黃 _ㄴ		9黃太 _ㄴ 仲



김태섭·정재국(2010), 『피리구음정악보』 ‘여민락’, 은하출판사.

## 제4절 타악기 기호

### 제21항

장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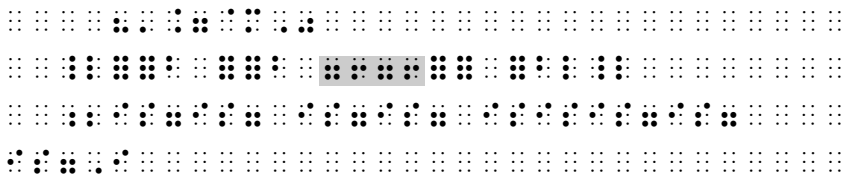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덩	합장단
	⋮	궁, 구	북편
	⋮	덕, 딱, 따	채편
	⋮	더러러, 다르르	채 굴림
	⋮	기덕, 기닥, 기딱	겹채
	⋮	더, 다	채찍음
	⋮	구궁, 구구	겹궁
	⋮	국	궁편 치고 막기

**해설** 장구는 채편과 궁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의 기호 중 ‘궁, 구궁, 국’은 왼쪽 궁편을 왼손 손바닥이나 궁글채로 연주하라는 기호이고, ‘덕, 더러러, 기덕, 더’는 오른쪽 채편을 열채로 연주하라는 기호들이며, ‘덩’은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라는 기호이다.

다음은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인사를 하기 위해 치는 장단인 인사굿 중 장구의 정간보이다. 장구에서 ‘더더’의 기호와 시가 표시에 유의해야 한다.

장구

덩	덩		덩	덩		더더	덩	덩	덩		따



장기범 외(2019), 『중학교 음악 2』 ‘인사굿’, (주)미래엔

## 제22항

북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둥, 덩	울음을 열어 친다.
┃	⋮	딱	테를 친다.
○ ○	⋮	두둥 두둥	감아 친다.
○ ○ ○ ○	⋮	두르르르	굴려서 뒤를 흘린다.
•	⋮	더	울음을 약하게 열어 친다.

**해설** 위 기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물놀이 북의 기본 타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타법: 기본 타법은 비교적 강하게 치는 정타와 약하게 치는 약타로 나뉜다.

### ① 정타 ‘둥’

- 한 번의 준비 동작으로 보통 이상 강하게 한 번 치는 소리이다.
- 채를 잡은 손을 귀 방향으로 들어 올려 손목을 밖으로 꺾어 준비 운동을 한다.
- 준비 동작에서 역동작으로 채의 끝이 가죽의 정 가운데에 닿게 한다.
- 치는 순간 방울이 달린 채와는 달리 가죽과 닿는 채 끝을 기점으로 하여 채와 가죽 면이 각도가 생기도록 손의 위치가 북 테두리와 조금 떨어져야 한다.

### ② 약타 ‘더’

- 한 번의 작은 준비 동작으로 작게 한 번 치는 소리이다.

- 손목만 살짝 박으로 찍어 준비 동작을 한다.
- 준비 동작에서 역동작으로 가죽의 가운데에 채 끝이 닿게 한다.

#### 나. 겹치기 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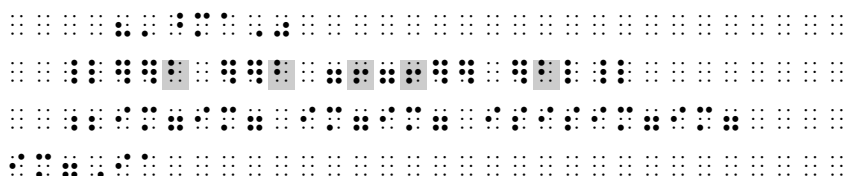
- ① 겹가락이나 길이 비율에 따라 단박과 장박이 만나 한 번의 준비 동작으로 치는 타법이다.
- ② 정타 ‘둥’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 동작을 한다.
- ③ 준비 동작에서 조금 느리게 가볍게 역동작을 하여 조금 약한 ‘구’를 치고 손목만 빠른 속도로 꺾어 두 번째 준비 동작을 한다.
- ④ 두 번째 준비 동작에서 빠르게 역동작으로 손목을 꺾어 ‘둥’을 친다.
- ⑤ 음악의 빠르기가 보통 이하의 속도일 때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치고, 빠르기가 빠를 수록 준비 동작의 각도가 조금씩 낮아진다. 아주 빠른 경우에는 준비 동작 없이 ‘더’를 가볍게 치고 빠른 속도로 손목을 밖으로 꺾어 ‘둥’의 준비 운동을 하여 다시 역순으로 빠르게 ‘둥’을 친다.

#### 다. 기타 타법

- ① ‘딱’: 북채로 북통의 상단부(나무 부분)를 치는 것이다.
- ② ‘두르르르’: 굴러 치기로 흘러듯이 연속적으로 친다.

다음은 인사굿 중 북의 정간보이다. 역시 시가 표시에 유의하여 점자로 표기해야 한다.



북	○	○		○	○		..	○	○	○		
	둥	둥		둥	둥		더더	둥	둥	둥		딱



장기범 외(2019), 『중학교 음악 2』 ‘인사굿’, (주)미래엔

## 제23항

뽕과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갱, 갠, 개, 갱, कै	울음을 열어 친다.
	⋮	객, 갯, 깨, 객	울음을 잡아 친다.
	⋮	지갠, 지갱, 그라	위에서 아래로 감아 친다.
	⋮	지갠, 지갱, 지갯	아래에서 위로 감아 친다.
	⋮	그랑, 당그랑, 지르-갱	머릿박을 강하게 감아 친다.
	⋮	개르르르... 개르르...	굴려 치고 뒤를 흘린다.
	⋮	엣, 웃, 뜻	쉬는 부분
	⋮	지레깁, 은지둑, 따닥	막음질
	⋮	개갠지	노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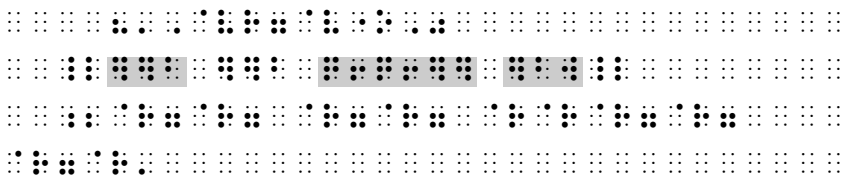
**해설** 뽕과리 소리에 대한 구음은 사투리만큼이나 다양하고 세밀하다. 강약에 따라 ‘갱’과 ‘객’, 음의 길이에 따라 ‘갱’과 ‘객’, 손바닥으로 막고 치면서 나타나는 음의 길이에 따라 ‘개’와 ‘갯’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짧게 앞에서 장식음을 연주하며 겹으로 치면 ‘그랑’ 등으로 표현한다. 위의 기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봉 농악의 오채질 곳을 구음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뽕과리	개갱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징	짓											
장구	덩			덩			궁		덕	궁		
북	둥			둥								

다음은 인사굿 중 땡과리 정간보이다. 세 번째 강 ‘개개’의 경우 한 정간 안에 두 개의 기호가 들어간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땡과리



○	○		○	○		○○	○	○	○		●
갱	갱		갱	갱		개개	갱	갱	갱		갯



장기범 외(2019), 『중학교 음악 2』 ‘인사굿’, (주)미래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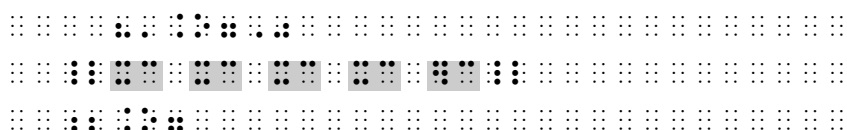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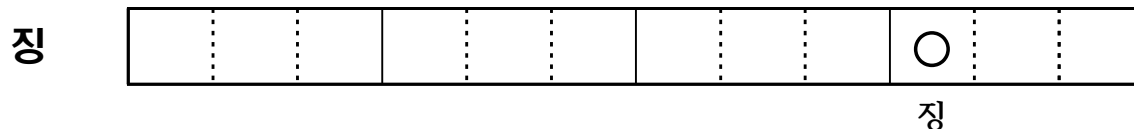
제24항

징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징	울음을 열어 친다.
	⦿	짓	울음을 막아 친다.

**해설** 징은 곡 중 연주 횟수가 적고 위와 같이 징 소리에 대한 구음도 많지 않지만 음악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기본 타법은 비교적 강하게 치는 정타인 ‘징’과 약하게 치는 약타인 ‘지’로 나뉜다. 정타 ‘징’은 한 번의 준비 동작으로 보통 크기 이상 강하게 한 번 치는 소리이다. 채를 잡은 손의 손목을 밖으로 꺾으면서 채를 잡은 손의 귀 방향(사선)으로 들어 준비 동작을 한다. 준비 동작에서 역동작으로 징의 울림판 정 가운데에 방울이 쳐지게 이동하고 마지막에 손목을 안으로 꺾어 친다. 치고 난 후 방울이 울림판과 조금 떨어지게 대기한다. 약타 ‘지’는 정타 ‘징’의 준비 동작의 크기와 각도를 작게 하여 친다. 기타 타법으로, 울림판을 막고 치는 ‘짓’은 채를 잡지 않은 손으로 울림판의 안쪽을 막고 친다. 이때 울림판을 막은 손과 채의 방울이 마치 박수를 치듯 서로 마주 닿는 느낌으로 친다.

다음은 인사굿 중 징의 정간보이다. 징에서 쉬다가 마지막 강에서 3박자의 징을 치는데 이때 쉬는 부분은 3박의 쉼표로 표시하고, 3소박으로 된 실선 강마다 한 칸씩 띄어 쓴다.



장기범 외(2019), 『중학교 음악 2』 ‘인사굿’, (주)미래엔

#### 참고

#### 가. 거문고

거문고는 현금이라고도 하며 고구려의 악성 왕사낙이 만들었다고 전해 온다. 거문고의 앞면은 오동나무이고 뒤판은 밤나무이며 6개의 줄은 명주실로 만든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는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의 술대로 줄을 튕기거나 거슬러 친다. 이 때 왼손의 중지와 약지로는 줄을 누르고 흔든다. 거문고는 그 소리가 깊고 그윽해서 거문고 산조와 같은 독주 또는 줄 풍유와 같이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가곡의 반주 악기로 널리 쓰인다.

#### 나. 가야금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으며 당시 악성 우륵으로 하여금 곡을 짓게 하였다는 악기이다. 재료는 거문고와 같으며 첫째 줄부터 점차 가늘어지는 12줄을 기러기 발 같은 안쪽으로 받치고 있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는 가야금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줄을 뜯고 튕기며 왼손으로는 손으로 뜯는 줄을 눌러 농현을 한다. 가야금에는 풍유곡을 위한 풍유 가야금과 산조나 병창을 위한 산조 가야금이 있으나 크기가 약간 다를 뿐 모양은 거의 같다. 가야금의 소리는 맑고 우아해서 산조의 독주, 가곡의 반주 합주용으로 많이 쓰인다.

정악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보다 몸통이 넓고 길다. 줄의 굵기도 산조 가야금보다 훨씬 굵으므로 음이 낮다. 산조 가야금의 경우는 앞판은 오동나무, 뒤판은 밤나무, 봉미 부분은 뽕나무를 주로 사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정악 가야금은 앞뒤 판을 모두 오동나무로 제작하고 봉미 부분만 뽕나무를 사용한다.

## 다. 해금

해금은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전래한 악기이다. 직경 10cm 가량의 작은 통 위에 약 66cm 가량의 대나무로 된 자루를 세웠고 이 자루에 2개의 주와를 끼워 두 줄을 드리웠는데, 이 줄은 통에 뿔쪽 나와 있는 원산이 받치고 있다. 해금은 활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2개의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해금은 줄이 2개뿐이지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며 가냘픈 듯 애련한 소리, 부드럽고 청아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기이다. 해금은 아악이나 민속악의 합주, 산조의 독주, 가곡의 반주용으로 쓰인다.

## 라. 아쟁

아쟁은 고려 때 중국 명나라에서 전해온 악기이다. 재료는 오동나무와 밤나무로 만들며 줄은 7줄인데, 첫 줄이 가장 굵고 차차 가늘어진다. 가야금처럼 안쪽이 줄을 받치고 있으며 초상이라는 틀에 받쳐 놓고 줄을 탄다. 아쟁을 연주할 때는 오른손으로 활대를 쥐고 줄을 긁어 소리를 낸다. 아쟁은 소리가 거칠고 구성지며 국악기 중에 가장 낮은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아악의 합주 악기로 많이 쓰이며 산조의 독주 악기로도 쓰인다.

## 마. 대금

대금은 중금, 소금과 함께 신라 3죽의 하나로서 삼국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악기이다. 오래된 황죽이나 쌍골죽으로 만들며 제일 위쪽에 입김을 불어 넣는 취구가 있고 그 아래로 청공과 6개의 음공이 뚫려 있다. 대금을 연주할 때는 가로로 잡고 부는데 취구에다 입술을 대고 손가락으로 음공을 막거나 열어서 소리를 낸다. 대금은 관악기 중에서 제일 소리가 부드럽고 운치가 있어 아악과 민속악의 독주와 합주 또는 가곡의 반주용으로 널리 쓰인다. 특히 청공의 갈대청을 울리는 시원스런 소리는 대금만의 독특한 멋이다.

## 바. 소금

소금은 당적이라고도 하며 신라 3죽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인데 제일 위쪽에 취구가 있고 6개의 음공이 뚫려 있다. 소금의 연주법은 대금의 연주법과 같은데 관악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소리를 낸다.

## 사. 단소

단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로서 조선시대 중국에서 전래된 악기이다. 단소는 대나무로 만들며 음공은 앞에 4개, 뒤에 1개가 있으며 취구에 숨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낸다. 단소는 배우기 쉬운 뿐 아니라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단소는 청성곡 등의 독주곡이나 생소병주, 영산회상 등에 쓰인다.

#### 아. 피리

피리는 고구려 때부터 사용된 악기로서 그 종류에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가 있다. 당피리는 소리가 거칠며, 세피리는 향피리보다 조금 가늘고 소리가 작다. 피리는 오래된 황죽으로 만들며 관의 왼쪽 끝에 대나무로 된 겹서를 꽂아 불도록 되어 있다. 음공은 앞쪽에 7개가 있고 뒤쪽에 1개가 있다. 피리의 음색은 크고 거친 듯하면서도 매우 부드럽고 음악의 표현이 자유로워서 합주나 독주용으로 많이 쓰인다.

#### 자. 장구

장구는 고려 예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왼쪽 궁편은 쇠가죽을 쓰고 오른쪽 채편은 말가죽을 쓰며 통은 주로 오동나무로 만든다. 장구는 채편과 궁편으로 나눌 수 있다. 채편은 장구 위쪽에 있는 조임줄이 벌어진 곳이고 궁편은 조임줄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다. 채편과 궁편을 조절할 수 있는 조임줄과 조이개로 구성되어 있다. 장구를 연주할 수 있는 도구로는 열채와 궁글채가 있다. 열채로는 채편을 연주하며 끝이 둥그런 궁글채로는 궁편을 연주할 수 있다. 궁편은 손바닥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 궁장구는 채편과 궁편으로 나눌 수 있다. 채편은 장구 위쪽에 있는 조임줄이 벌어진 곳이고 궁편은 조임줄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다. 궁편과 채편의 가장자리 부분을 변죽이라고 한다. 장구의 궁편은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채편은 높고 맑은 소리를 낸다. 장구는 정악을 비롯하여 산조, 무악, 잡가, 민요, 풍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대중적인 악기이다.

#### 차. 북

용고(북)는 북통 둘레에 용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양쪽에 쇠고리를 박고 여기에 끈을 꿰어 목에다 걸고 치는데, 대취타와 풍물에 활용한다. 용골은 힘차고 깨끗한 소리를 낸다. 판소리 북은 흔히 소리 북이라고 하며 판소리의 반주용으로 쓰인다. 판소리 북의 연주법은 고법이라고도 하는데, 대단히 발달된 난이도가 높은 주법이다. 좌고는 정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북이며 북을 틀에 걸어 놓고 친다. 좌고는 대개 장구의 북편을 울릴 때마다 한 번씩 울린다. 소고는 매구 북이라고도 하며 북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서 채로 치는데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소고는 풍물에 활용하며 민속 무용에서는 이 악기를 들고 두드리면서 춤을 춘다.

#### 카. 팽과리

팽과리는 징과 같은 타악기로서 일명 팽매기 또는 소금이라고도 한다. 징과 같이 놋쇠로 만들지만 징보다는 훨씬 작다. 팽과리는 장구와 더불어 리듬 악기로는 으뜸이며 풍물이나 사물놀이 등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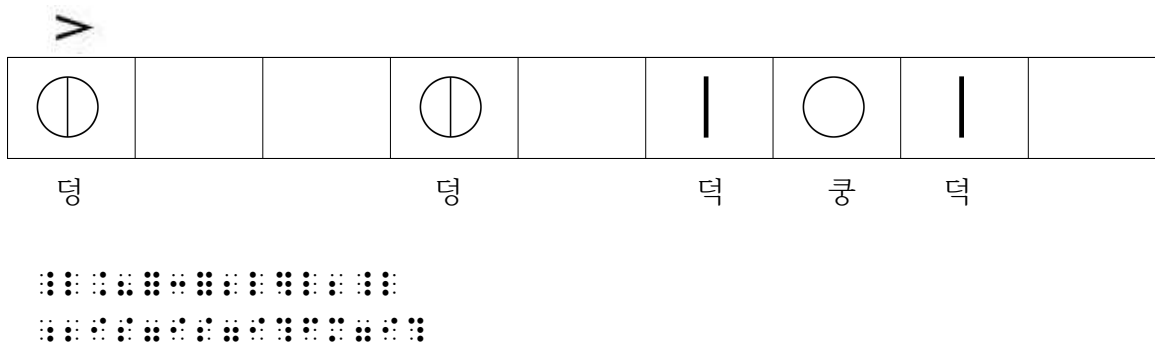
타. 징

징은 대금이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전해오는 악기로, 늦쇠로 만든다. 징은 가장자리에 끈을 달아 들고 노끈을 감은 막대기로 쳐서 소리를 내며 종묘 제례악과 군악, 풍물, 무악 등에 널리 쓰인다. 징은 낮고 긴 소리를 내며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감싸 주는 구실을 한다. 징은 장단의 첫박을 비롯하여 중요한 박에만 쳐 준다.

## 제25항1)

말붙임새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말붙임새는 해당 타악기 기호를 사용한다.
2. 말붙임새의 길이를 나타내는 칸수를 표기할 때에는 말붙임새 뒤에 수표 없이 해당 숫자를 한 단 내려 적는다.



1) ‘말붙임새’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어 25항의 해설은 생략함.

## 참고 문헌

- 강사준(2018), 『정악 해금보』, 은하출판사.
- 강혜인·최병길(2011), 『장구장단 지도법』, 한국학술정보.
- 국립국어원(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 국립국어원.
- 김기수·구윤국(1998), 『현금정악』, 은하출판사.
- 김기수·최충웅(1984), 『가야금 정악』, 은하출판사.
- 김태섭·정재국(2010), 『피리구음정악보』, 은하출판사.
- 노수환(2011), 『장구-노수환의 풍물 길라잡이』, 조율.
- 문화관광부(2006), 『[개정] 한국 점자 규정』, 문화관광부.
- 신용문(2014), 『대금 정악보』, 은하출판사.
- 안지영(2011), 『쉽게 배우는 단소』, 음악세계.
- 안진성(2013), 『해금의 정간보와 오선보』, 세광음악출판사.
- 이건희·조성래(2006), 『알기 쉬운 피리교본』, 한소리국악원.
- 임안수(1986), 『한국 맹인 직업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장기범 외(2019), 『고등학교 음악』,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9), 『중학교 음악 1』,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9), 『중학교 음악 2』,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9), 『초등학교 음악 5』,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9), 『초등학교 음악 6』, (주)미래엔
- 장사훈(1988), 『국악 총론』, 세광음악출판사.
- 조성래(1992), 『단소 교본』, 서울:도서출판한소리.
- 조성래(1994), 『대금 교본』, 서울:도서출판한소리.
- 최충웅(2017), 『가야금 정악보』, 은하출판사.
- 최태형(2014), 『해금산조 네바탕』, 세광음악출판사.
- 한국점자연구위원회(1994), 『개정한국점자통일안』, 한국점자연구위원회.
- 황득주·이오규(2013), 『정악 거문고보』, 은하출판사.
- 황병주(2013), 『황병주 가야금 교본』, 은하출판사.
- * 서울대학교 이돈응 교수가 개발한 국악 기호 폰트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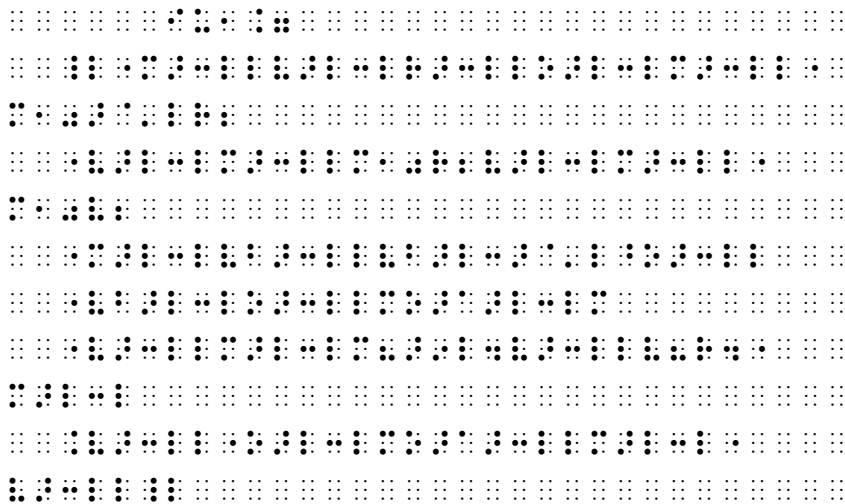
[부록 1]

2017년 한국 음악 점자 규정 점역 예제

## 1. 정간보

<출처: 강사준(2018), 『정악 해금보』 ‘돌장’, 은하출판사.>

漢	一	黃	一	黃	一	仲	一	黃	一	仲	一	동 장
林	一	仲	一			黃	一	仲	一	黃	一	
仲		一一 ㄴ		林	一			一一 太		太	一	
林 [△]	一	黃	一	仲		黃	一	黃	一	林	一	
仲	一	一一 太		林 [△]	一		}}	仲	一	仲	一	
黃	一	仲	一	仲		俤	一	一一 黃		一一 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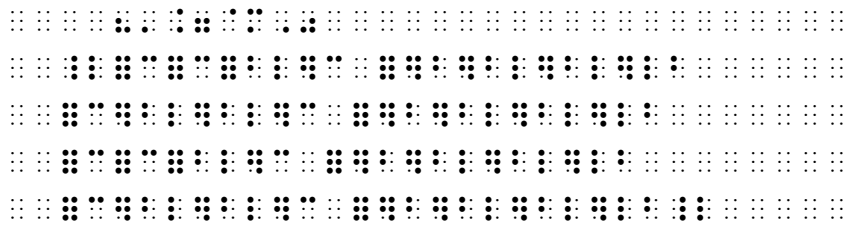


## 2. 정간·오선 혼합보

<출처: 장기범 외(2019), 『고등학교 음악』 ‘고사리 꺾자’, (주)미래엔>

### 고사리 꺾자

자진모리장단



### 3. 오선 국악보

<출처: 최태형(2014), 『해금산조 네바탕』 한범수류 짧은산조, 세광음악출판사.>



점역자 주 : 위의 악보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 기호를 사용하였다. 국악 기호가 서양 음악에서는 서양 음악 악상 기호 순서로 점역하여야 혼란이 없어 이를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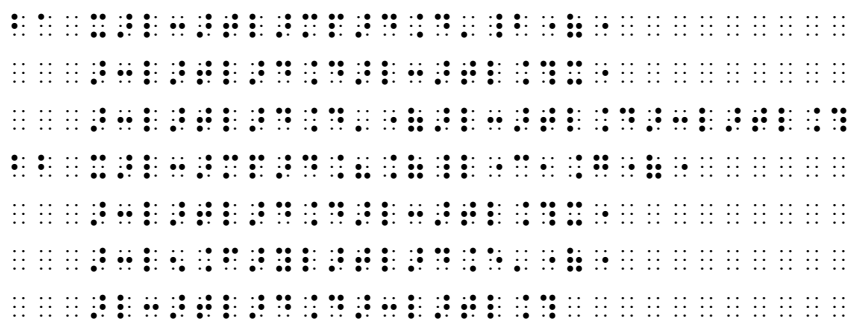
→ : 빼는 표

← : 넣는 표

ㄴ : 식지(제2지, ::::)

□ : 중지(제3지, ::::)

ㄗ : 약지(제4지, ::::)





[부록 2]

2017년 한국 음악 점자 규정 신규 대조표














현행	개정후
<p>음악 점자</p> <p>제1장 한국 음악(국악)</p> <p>제1절 한국음악 일반</p>	<p>한국 음악 점자</p> <p>제1장 정간보와 5음 악보 (삭제)</p>
<p>제1항 한국 음악의 점자 기보(記譜)는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1. 12율(十二律)의 길을 표시할 때, 같은 길 안에서는 첫 음 앞에만 길표를 적고, 다른 길로 이행할 때까지는 적지 아니한다.</p> <p>橫 :: 伏 :: 仲 :: 林 :: 備 ::</p> <p>2. 기본 음역을 적을 때, 같은 길 안에서는 첫 음에만 기본 음역표(♯, 5점)를 적고, 다른 길로 이행할 때까지는 적지 아니한다.</p> <p>黃 :: 太 :: 仲 :: 林 :: 南 ::</p> <p>3. 오선보로 기보된 국악곡을 점역할 때, 그 중에 있는 각종 국악 기호는 국악 기호표 안에 적는다.</p> <p>4. 길표를 제외한 모든 기호는 12율의 다음 칸에 적되, 음의 길이에 관한 표, 주법에 관한 표, 장식음을 비롯한 기타 기호의 순으로 적는다.</p> <p>5. 점역 과정에서 악보를 악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악기의 이름을 그 악보 윗줄에 네 칸을 띄어 적는다.</p>	<p>(삭제)</p> <p>제8항 12율의 길을 표시할 때, 같은 길 안에서는 첫 음 앞에만 길표를 적고, 다른 길로 이행할 때까지는 이를 적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길로 이행할 경우에는 그 첫 음에 해당하는 길표를 적는다.</p> <p> $\gamma$黃 $\gamma$太 $\gamma$仲 $\gamma$林 $\gamma$南 :: :: :: ::  $\gamma$黃 $\gamma$太 $\gamma$仲 $\gamma$林 $\gamma$南 $\gamma$黃 :: :: :: :: :: </p> <p>제9항 기본 음역은 ♯으로 적되, 첫 음에만 표시하고 다른 길로 이행할 때까지는 이를 생략한다.</p> <p>黃太仲林南$\gamma$黃 :: :: :: :: ::</p> <p>제10항 정간보나 오선보로 기보된 국악곡을 점역할 때, 그 중에 있는 각종 한국 음악 기호는 한국 음악 기호 표 안에 적는다. 다만, 정간보에서 표기된 전성 표, 퇴성 표, 추성 표, 뜰 표, 싸랭 표 등 독보에 혼란이 없는 기호들은 한국 음악 기호표를 생략하고 적을 수 있다.</p> <p>제11항 길표를 제외한 모든 기호는 12율의 다음 칸에 적되, 음의 길이에 관한 표, 주법에 관한 표, 장식음을 비롯한 기타 기호의 순으로 적는다.</p> <p>제12항 악보를 악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악기의 이름을 그 악보 위 줄에 네 칸을 띄어 적는다.</p>
<p>제2항 정간보(井間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1. 12율을 기보할 때에는 앞 글자만 적는다.</p> <p>黃鍾(황종) :: 大呂(대려) :: 太簇(태주) ::  夾鍾(협종) :: 姑洗(고선) :: 仲呂(중려) ::</p>	<p>제1항 12율명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1. 12율명 중 평조의 기본 5음은 황종(黃鍾), 태주(太簇),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이나, 이것을 줄여서 黃, 太, 仲, 林, 南으로 적는다. 위의 기본 5음을 중심으로 한 그 사이 음들은 다음과 같다.</p>

현행	개정후																								
蕤賓(유빈) ䷗ 林鐘(임종) ䷌ 夷則(이척) ䷐ 南呂(남려) ䷎ 無射(무역) ䷘ 應鐘(응종) ䷖	<table><tr><td>황종 (黃鍾)</td><td>대려 (大呂)</td><td>태주 (太簇)</td><td>협종 (夾鍾)</td><td>고선 (姑洗)</td><td>중려 (仲呂)</td></tr><tr><td>유빈 (蕤賓)</td><td>임종 (林鍾)</td><td>이척 (夷則)</td><td>남려 (南呂)</td><td>무역 (無射)</td><td>응종 (應鍾)</td></tr></table>	황종 (黃鍾)	대려 (大呂)	태주 (太簇)	협종 (夾鍾)	고선 (姑洗)	중려 (仲呂)	유빈 (蕤賓)	임종 (林鍾)	이척 (夷則)	남려 (南呂)	무역 (無射)	응종 (應鍾)												
황종 (黃鍾)	대려 (大呂)	태주 (太簇)	협종 (夾鍾)	고선 (姑洗)	중려 (仲呂)																				
유빈 (蕤賓)	임종 (林鍾)	이척 (夷則)	남려 (南呂)	무역 (無射)	응종 (應鍾)																				
(신설)	2. 이 12율을 실제로 기보할 때에는 율명의 앞 글자만 적으며 그에 대한 점형은 다음과 같다.																								
2. 음역은 12율에 물수변(ㄱ)이나 사람인변(亻) 을 붙여 나타낸다. 1) 중청성(ㄱ)은 ䷗(6점)으로 적되, 12율에 물수 변(ㄱ) 둘을 붙여 적는다.	<table><tr><td>黃(황)</td><td>䷗</td><td>大(대)</td><td>䷌</td><td>太(태)</td><td>䷐</td><td>夾(협)</td><td>䷗</td></tr><tr><td>姑(고)</td><td>䷗</td><td>仲(중)</td><td>䷌</td><td>蕤(유)</td><td>䷗</td><td>林(임)</td><td>䷌</td></tr><tr><td>夷(이)</td><td>䷗</td><td>南(남)</td><td>䷌</td><td>無(무)</td><td>䷗</td><td>應(응)</td><td>䷌</td></tr></table> 제2항 각 성부의 음역 표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배탁성(하배성, ㄱ)은 12율에 사람인변(亻) 둘을 붙이며 점자 에서는 ䷗으로 적는다.	黃(황)	䷗	大(대)	䷌	太(태)	䷐	夾(협)	䷗	姑(고)	䷗	仲(중)	䷌	蕤(유)	䷗	林(임)	䷌	夷(이)	䷗	南(남)	䷌	無(무)	䷗	應(응)	䷌
黃(황)	䷗	大(대)	䷌	太(태)	䷐	夾(협)	䷗																		
姑(고)	䷗	仲(중)	䷌	蕤(유)	䷗	林(임)	䷌																		
夷(이)	䷗	南(남)	䷌	無(무)	䷗	應(응)	䷌																		
ㄱ 黃 ䷗ ㄱ 大 ䷌ ㄱ 太 ䷐ ㄱ 夾 ䷗ ㄱ 姑 ䷗ ㄱ 仲 ䷌ ㄱ 蕤 ䷗ ㄱ 林 ䷌ ㄱ 夷 ䷗ ㄱ 南 ䷌ ㄱ 無 ䷗ ㄱ 應 ䷌	<table><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able> 2. 탁성(배성, 亻)은 12율에 사람인변(亻) 하나를 붙이며 점자에 서는 ䷗으로 적는다.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2) 청성(ㄴ)은 ䷗(4-6점)으로 적되, 12율에 물수 변(ㄴ) 하나를 붙여 적는다.	<table><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able> 2. 중성(정성)은 ䷗(5점)으로 적는다.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黃 ䷗ 大 ䷌ 太 ䷐ 夾 ䷗ 姑 ䷗ 仲 ䷌ 蕤 ䷗ 林 ䷌ 夷 ䷗ 南 ䷌ 無 ䷗ 應 ䷌	<table><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able> 3. 중성(정성)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으며 점자에서는 기본 음역 표시로서 ䷗으로 적는다.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4) 탁성(배성, 亻)은 ䷗(4-5점)으로 적되, 12율 에 사람인변(亻) 하나를 붙여 적는다.	<table><tr><td>黃</td><td>䷗</td><td>大</td><td>䷌</td><td>太</td><td>䷐</td><td>夾</td><td>䷗</td></tr><tr><td>姑</td><td>䷗</td><td>仲</td><td>䷌</td><td>蕤</td><td>䷗</td><td>林</td><td>䷌</td></tr><tr><td>夷</td><td>䷗</td><td>南</td><td>䷌</td><td>無</td><td>䷗</td><td>應</td><td>䷌</td></tr></table> 4. 청성(ㄴ)은 12율에 물수변(ㄴ) 하나를 붙이며 점자에서는 ䷗ 으로 적는다.	黃	䷗	大	䷌	太	䷐	夾	䷗	姑	䷗	仲	䷌	蕤	䷗	林	䷌	夷	䷗	南	䷌	無	䷗	應	䷌
黃	䷗	大	䷌	太	䷐	夾	䷗																		
姑	䷗	仲	䷌	蕤	䷗	林	䷌																		
夷	䷗	南	䷌	無	䷗	應	䷌																		
𠂔 黃 ䷗ 𠂔 大 ䷌ 𠂔 太 ䷐ 𠂔 夾 ䷗ 𠂔 姑 ䷗ 𠂔 仲 ䷌ 𠂔 蕤 ䷗ 𠂔 林 ䷌ 𠂔 夷 ䷗ 𠂔 南 ䷌ 𠂔 無 ䷗ 𠂔 應 ䷌	<table><tr><td>黃</td><td>䷗</td><td>大</td><td>䷌</td><td>太</td><td>䷐</td><td>夾</td><td>䷗</td></tr><tr><td>姑</td><td>䷗</td><td>仲</td><td>䷌</td><td>蕤</td><td>䷗</td><td>林</td><td>䷌</td></tr><tr><td>夷</td><td>䷗</td><td>南</td><td>䷌</td><td>無</td><td>䷗</td><td>應</td><td>䷌</td></tr></table> 4. 청성(ㄴ)은 12율에 물수변(ㄴ) 하나를 붙이며 점자에서는 ䷗ 으로 적는다.	黃	䷗	大	䷌	太	䷐	夾	䷗	姑	䷗	仲	䷌	蕤	䷗	林	䷌	夷	䷗	南	䷌	無	䷗	應	䷌
黃	䷗	大	䷌	太	䷐	夾	䷗																		
姑	䷗	仲	䷌	蕤	䷗	林	䷌																		
夷	䷗	南	䷌	無	䷗	應	䷌																		


현행	개정후																																																
<p>5) 배탁성(하배성, 𠂔)은 ䷔(4점)으로 적되, 12울에 사람인변(人) 둘을 붙여 적는다.</p> <p>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p>	<table><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r><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d>𠂔</td><td>䷔</td></tr></table> <p>5. 중청성(𠂔)은 12울에 물수변(𠂔) 둘을 붙이며 점자에서는 ䷔으로 적는다.</p> <table><tr><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r><tr><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r><tr><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d>𠂔 𠂔</td><td>䷔</td></tr></table>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𠂔 𠂔	䷔																																										
<p>3. 정간보의 시가(時價)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1) 정간(井間)의 칸수는 12울의 다음 칸에 수표를 뺀 숫자로 나타낸다.</p> <p>䷔ ䷔ ䷔ ䷔ 사람인변 하나가 붙은 탁황종을 3박 끝라는 뜻.</p> <p>[다만] 음이 1 정간만을 차지할 때에는 음의 숫자 '1'을 생략할 수 있다.</p> <p>䷔ ䷔ 삼수변 둘이 붙은 중청 태주를 1박 끝라는 뜻.</p> <p>2) 1박 미만의 소박을 표시할 때에는 1정간을 1박으로 하여 12등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간 내의 음의 점유 범위(음의 길이)를 그 분자로 하여 이를 해당 음의 다음 칸에 수표를 적지 <u>아니하고</u> 숫자만 내려 적는다.</p> <p>䷔ ䷔ 탁림종(林)이 $\frac{3}{12}$ (1/4) 박의 길이라는 뜻.</p> <p>䷔ ䷔ 남려(南)가 $\frac{4}{12}$ (1/3) 박의 길이라는 뜻.</p> <p>䷔ ䷔ 청황종(淸)이 $\frac{6}{12}$ (1/2) 박의 길이라는 뜻.</p>	<p>제3항 정간보의 시가(時價)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1. 정간(井間)의 칸 수는 12울의 다음 칸에 수표를 뺀 숫자로 나타낸다. 다만, 음이 1박일 때에는 그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다. 따라서 숫자가 붙지 않은 12울은 모두 1박으로 읽는다.</p> <p>䷔ ䷔ ䷔ ䷔ 사람인변 하나가 붙은 탁중려 3박</p> <p>䷔ ䷔ ䷔ ䷔ 물수변 하나가 붙은 청성 임종 4박</p> <p>䷔ ䷔ 물수변 둘이 붙은 중청성 남려 1박</p> <p>2. 1박 미만의 소박을 표시할 때에는 1정간을 1박으로 하여 12등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간 내의 음의 점유 범위(음의 길이)를 그 분자로 하여 이를 해당 음의 다음 칸에 수표를 적지 <u>않고</u> 숫자만 내려 적는다.</p> <p>䷔ ䷔ ䷔ ䷔ 청성 황종 9/12, 즉 3/4박의 길이</p> <p>䷔ ䷔ ䷔ ䷔ 탁성 임종 6/12, 즉 1/2박의 길이</p> <p>䷔ ䷔ ䷔ ䷔ 중성 남려 4/12, 즉 1/3박의 길이</p> <p>䷔ ䷔ ䷔ ䷔ 청성 중려 3/12, 즉 1/4박의 길이</p>																																																

현행	개정후																																										
(신설)	<p>제4항 5음 약보는 어떤 선법의 중심음을 宮(궁)으로 표시하고 이 궁을 중심으로 음계를 따라 한 음 위 음은 上一(상일), 두 음 위 음은 上二(상이) 등의 방법으로 上三(상삼) 上四(상사) 上五(상오)까지 나타내고, 한 음 아래 음은 下一(하일), 두 음 아래 음은 下二(하이) 등의 방법으로 下三(하삼) 下四(하사) 下五(하오)까지 나타낸다.</p>																																										
제3항 오음 약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5항 5음 약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下一(하일) :: 宮(궁) :: 上一(상일) :: 下二(하이) :: 上二(상이) :: 下三(하삼) :: 上三(상삼) :: 下四(하사) :: 上四(상사) :: 下五(하오) :: 上五(상오) ::	하일(下一) :: 궁(宮) :: 상일(上一) :: 하이(下二) :: 상이(上二) :: 하삼(下三) :: 상삼(上三) :: 하사(下四) :: 상사(上四) :: 하오(下五) :: 상오(上五) ::																																										
(신설)	제2장 한국 음악 점자의 기호 표, 전·후치 기호 및 기보 원칙																																										
제4항 오선보로 기보된 국악곡의 국악 기호는 ::(3-4-5점)과 ::(1-2-3점) 사이에 적는다.	제6항 정간보나 오선보로 기보된 국악곡의 한국 음악 기호는 ::과 ::사이에 적는다.																																										
제5항 국악 점자를 적을 때에는 그 앞과 뒤에 전후치 기호(::, 4-5-6점, 1-2-3점)를 적는다.	제7항 한글 등 다른 문자 중에 한국 음악 점자를 적을 때에는 그 앞과 뒤에 전·후치 기호 ::를 적는다.																																										
제2절 악기별 기호	제3장 각 악기별 기호																																										
(신설)	제1절 전체 악기 공통 기호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설명</th><th>기호</th><th>점형</th><th>설명</th></tr><tr><td>慢(만)</td><td>::</td><td>느린 속도로</td><td>中(중)</td><td>::</td><td>보통의 속도로</td></tr><tr><td>數(삭)</td><td>::</td><td>빠른 속도로</td><td>ㄱ·ㄴ·ㄷ</td><td>::</td><td>점점 느리게</td></tr><tr><td>ㄱ·ㄴ·ㄷ</td><td>::</td><td>점점 속하게</td><td>ㄱ·ㄷ</td><td>::</td><td>조금 느리게</td></tr><tr><td>ㄱ·ㄴ</td><td>::</td><td>조금 속하게</td><td>ㅂ·ㄴ</td><td>::</td><td>본래의 속도로</td></tr><tr><td>∨ (특강표)</td><td>::</td><td>특히 강하게 내라는 표</td><td></td><td></td><td></td></tr><tr><td>ㄹ</td><td>::</td><td>강하게</td><td>ㄹ</td><td>::</td><td>더욱</td></tr></table>	기호	점형	설명	기호	점형	설명	慢(만)	::	느린 속도로	中(중)	::	보통의 속도로	數(삭)	::	빠른 속도로	ㄱ·ㄴ·ㄷ	::	점점 느리게	ㄱ·ㄴ·ㄷ	::	점점 속하게	ㄱ·ㄷ	::	조금 느리게	ㄱ·ㄴ	::	조금 속하게	ㅂ·ㄴ	::	본래의 속도로	∨ (특강표)	::	특히 강하게 내라는 표				ㄹ	::	강하게	ㄹ	::	더욱
기호	점형	설명	기호	점형	설명																																						
慢(만)	::	느린 속도로	中(중)	::	보통의 속도로																																						
數(삭)	::	빠른 속도로	ㄱ·ㄴ·ㄷ	::	점점 느리게																																						
ㄱ·ㄴ·ㄷ	::	점점 속하게	ㄱ·ㄷ	::	조금 느리게																																						
ㄱ·ㄴ	::	조금 속하게	ㅂ·ㄴ	::	본래의 속도로																																						
∨ (특강표)	::	특히 강하게 내라는 표																																									
ㄹ	::	강하게	ㄹ	::	더욱																																						

현행	개정후																												
	<table><tr><td></td><td></td><td>연주하라는 표</td><td></td><td></td><td>강하게 연주하라는 표</td></tr><tr><td>ㄱ</td><td>::</td><td>약하게 연주하라는 표</td><td>ㄴ</td><td>:::</td><td>더욱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td></tr><tr><td>^</td><td>::</td><td>점점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td><td>∨</td><td>::</td><td>점점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td></tr></table>			연주하라는 표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ㄱ	::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ㄴ	:::	더욱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	::	점점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	::	점점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연주하라는 표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ㄱ	::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ㄴ	:::	더욱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	::	점점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	::	점점 약하게 연주하라는 표																								
(신설)	<div>제2절 현악기 기호</div> <div>제13항 현악기 공통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div>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ㄸ</td><td>::</td><td>추성 표</td><td>음의 끝부분을 밀어 올리는 표</td></tr><tr><td>ㄹ</td><td>::</td><td>퇴성 표</td><td>음의 끝부분을 흘려 내리는 표</td></tr><tr><td>ㄺ</td><td>:::</td><td>겹전성 표</td><td>음을 세게 구르는 표</td></tr><tr><td>ㄻ</td><td>::</td><td>전성 표</td><td>음을 살짝 구르는 표</td></tr><tr><td>ㄽ</td><td>::</td><td>굵은 농현</td><td>음을 굵게 떠는 표</td></tr><tr><td>ㄾ</td><td>::</td><td>가는 농현</td><td>음을 가늘게 떠는 표</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ㄸ	::	추성 표	음의 끝부분을 밀어 올리는 표	ㄹ	::	퇴성 표	음의 끝부분을 흘려 내리는 표	ㄺ	:::	겹전성 표	음을 세게 구르는 표	ㄻ	::	전성 표	음을 살짝 구르는 표	ㄽ	::	굵은 농현	음을 굵게 떠는 표	ㄾ	::	가는 농현	음을 가늘게 떠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ㄸ	::	추성 표	음의 끝부분을 밀어 올리는 표																										
ㄹ	::	퇴성 표	음의 끝부분을 흘려 내리는 표																										
ㄺ	:::	겹전성 표	음을 세게 구르는 표																										
ㄻ	::	전성 표	음을 살짝 구르는 표																										
ㄽ	::	굵은 농현	음을 굵게 떠는 표																										
ㄾ	::	가는 농현	음을 가늘게 떠는 표																										
제6항 각종 악기 연주에 사용되는 기호와 부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삭제)																												
<div>1. 가야금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div> <div>1) 정악 가야금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div> <div>모지로 타는 표(—) :: 통기는 표(○) ::</div> <div>장지로 타는 표(ㄴ) :: 싸랭(ㄱ) ::</div> <div>슬기둥(ㄷ) :: 뜰(√) ::</div> <div>전성표( ㄻ ) :: 퇴성표( ㄹ·ㄹ ) ::</div> <div>추성표( ㄸ·ㄸ ) :: 연통김표( 8° ) ::</div> <div>뜰동표(꺾음표, 압성표, ㄹ ) ::</div> <div>2) 산조 가야금의 오른손 수법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div>	<div>제15항 가야금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div> <div>1. 산조 가야금</div>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꺾기</td><td>본음보다 단2도 살짝 높였다가 들어 올리는 표</td></tr><tr><td>ㄴ</td><td>::</td><td>뒤 내림</td><td>본음보다 낮은음으로 흘려 내리는 표(퇴성 표)</td></tr><tr><td>ㄹ</td><td>::</td><td>올림</td><td>본음보다 높은음으로 휘어 올리는 표(추성 표)</td></tr><tr><td>ㄻ</td><td>:::</td><td>내려 떨기</td><td>연결된 음을 농현으로 떨면서 내리는 표</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꺾기	본음보다 단2도 살짝 높였다가 들어 올리는 표	ㄴ	::	뒤 내림	본음보다 낮은음으로 흘려 내리는 표(퇴성 표)	ㄹ	::	올림	본음보다 높은음으로 휘어 올리는 표(추성 표)	ㄻ	:::	내려 떨기	연결된 음을 농현으로 떨면서 내리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꺾기	본음보다 단2도 살짝 높였다가 들어 올리는 표																										
ㄴ	::	뒤 내림	본음보다 낮은음으로 흘려 내리는 표(퇴성 표)																										
ㄹ	::	올림	본음보다 높은음으로 휘어 올리는 표(추성 표)																										
ㄻ	:::	내려 떨기	연결된 음을 농현으로 떨면서 내리는 표																										

현행	개정후			
엄지로 뜯는 표 (1) ::		:: ::	한 줄 누름	본음보다 한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식지로 뜯는 표 (2) ::		:: ::	두 줄 누름	본음보다 두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장지로 뜯는 표 (3) ::		:: ::	본줄	본래의 줄로 돌아가는 표
연통김표( 8° ) ::	—	:: ::	왼손 엄지	왼손 엄지로 연주하라는 표
식지와 엄지로 잡는 표(2~1) :: ::		:: ::	첫 음 올림	첫 음의 여음으로 처리하라는 표
엄지와 식지로 거꾸로 잡는 표(1~2) :: ::				
장지와 엄지로 잡는 표(3~1) :: ::				
엄지와 장지로 거꾸로 잡는 표(1~3) :: ::				
엄지로 뜯고 식지와 엄지로 잡는 표(1 2~1) :: :: ::				
3) 산조 가야금의 왼손 수법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늘게 떠는 표(  ) ::				
굵게 떠는 표(  ) ::				
떨지 않는 표(  ) ::				
구르는 표(전성표)(  ) ::				
본래의 줄로 돌아가는 표(  ) ::				
엄지표(-) ::				
음의 시작을 약반음 정도 낮은 음에서 말어 올려 내는 표(  ) ::				
음의 끝을 약 반음 정도 휘어 내리는 표(다루치는 표)(  ) ::				
본래 연주해야 되는 줄보다 한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 ::				
본래 연주해야 되는 줄보다 두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 ::				





















2. 정악 가야금			
가. 오른손 기호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 ::	모지	모지로 타는 표
°	:: ::	팅김	모지와 식지를 둥글게 하여 식지 손톱으로 현을 튕겨 내는 표
L	:: ::	장지	장지로 타는 표
ㄱ	::	싸랭	장지로 음을 아랫소리를 속히 거쳐 무지로 제 음을 내는 표
ㄴ	::	슬기둥	식지·장지·모지의 순으로 타되 현의 위치에 따라 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난다.
✓	::	뜯	모지 손톱 등으로 뜯어서 내는 표로서 늘 모지 표 다음에 오는 탄법이다.
8	:: ::	연팅김	팅긴 표의 복수형으로 소지·무명지·장지·식지를 연이어 튕겨 낸다.


































나. 왼손 기호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전성	음을 구른다.
艮	::	퇴성	음을 흘려 내린다.
扌	::	추성	현을 잡고 소지로 약간 눌러서 음을 밀어 올린다.

현행	개정후				
	<table><tr><td>ㄱ</td><td>⦿</td><td>뜰동</td><td>퇴성이나 추성 때와 같이 현을 잡고 오른손과 동시에 현을 눌러 발현한다.</td></tr></table>	ㄱ	⦿	뜰동	퇴성이나 추성 때와 같이 현을 잡고 오른손과 동시에 현을 눌러 발현한다.
ㄱ	⦿	뜰동	퇴성이나 추성 때와 같이 현을 잡고 오른손과 동시에 현을 눌러 발현한다.		
2. 정악 거문고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4항 거문고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u>살강·슬기둥(ㄱ) ⦿</u>	1. 술대 기호				
<u>싸랭(ㄴ) ⦿</u>					
<u>뜰(∨) ⦿</u>					
<u>문현(文) ⦿</u>					
<u>대현(大) ⦿</u>					
<u>전성표( 𐄂 ) ⦿</u>					
<u>유현(子) ⦿</u>					
<u>괘상청(上) ⦿</u>					
<u>괘하청(中) ⦿</u>					
<u>무현(下) ⦿</u>					
<u>퇴성표( 𐄂·良 ) ⦿</u>					
<u>추성표( 𐄂·ㄱ ) ⦿</u>					
<u>자출표( 𐄂·自 ) ⦿</u>					
<u>소지로 뜰는 표(小) ⦿</u>					
<u>괘 표시(一, 二, 十六) ⦿</u>					
<u>가곡을 반주할 때 1/3과 2/3의</u>					
<u>시가(時價)를 나타낼 때 쓰는 표( 𐄂 ) ⦿</u>					
<u>가곡을 연주할 때 2/3와 1/3의 시가를</u>					
<u>나타낼 때 쓰는 표( 𐄂 ) ⦿</u>					

현행	개정후																																												
	<table><tr><td></td><td></td><td></td><td>정해진 구음이 다르다.</td></tr><tr><td></td><td>::</td><td>싸랭</td><td>문현을 처음에 세게 내고 유현을 급속히 긋는 표. 뒤에 붙는 음에 따라서(유현의 기준) '쌀당, 쌀동'과 같이 붙인다. (된 발음)</td></tr><tr><td></td><td>:::</td><td>살당_</td><td>가곡 반주 시 1/3과 2/3를 나타낼 때 쓰는 표</td></tr><tr><td></td><td>:::</td><td>살_당</td><td>가곡 반주 시 2/3와 1/3을 나타낼 때 쓰는 표</td></tr></table> <p>2. 왼손 기호</p>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自</td><td>::</td><td>자출</td><td>검지나 엄지로 줄을 치거나 뜯는 표</td></tr><tr><td>小</td><td>::</td><td>소지</td><td>소지로 뜯는 표(가곡에 해당한다)</td></tr><tr><td>ㅁ</td><td>:::</td><td>상하 농현</td><td>그 음을 위에서 아래로 떠는 표</td></tr><tr><td>~~~~~</td><td>::</td><td>가는 농현</td><td>1/4음 꺾어서 소리 낸 후 가늘게 떠는 표</td></tr><tr><td>^</td><td>:::</td><td>꺾기</td><td>꺾는 음. 본음보다 반음 높이 내는 표</td></tr><tr><td>ㄱ</td><td>:::</td><td>제자리꺾기</td><td>본음보다 한 음 높이 낸 후 제 음을 속히 내는 표</td></tr></table>				정해진 구음이 다르다.		::	싸랭	문현을 처음에 세게 내고 유현을 급속히 긋는 표. 뒤에 붙는 음에 따라서(유현의 기준) '쌀당, 쌀동'과 같이 붙인다. (된 발음)		:::	살당_	가곡 반주 시 1/3과 2/3를 나타낼 때 쓰는 표		:::	살_당	가곡 반주 시 2/3와 1/3을 나타낼 때 쓰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自	::	자출	검지나 엄지로 줄을 치거나 뜯는 표	小	::	소지	소지로 뜯는 표(가곡에 해당한다)	ㅁ	:::	상하 농현	그 음을 위에서 아래로 떠는 표	~~~~~	::	가는 농현	1/4음 꺾어서 소리 낸 후 가늘게 떠는 표	^	:::	꺾기	꺾는 음. 본음보다 반음 높이 내는 표	ㄱ	:::	제자리꺾기	본음보다 한 음 높이 낸 후 제 음을 속히 내는 표
			정해진 구음이 다르다.																																										
	::	싸랭	문현을 처음에 세게 내고 유현을 급속히 긋는 표. 뒤에 붙는 음에 따라서(유현의 기준) '쌀당, 쌀동'과 같이 붙인다. (된 발음)																																										
	:::	살당_	가곡 반주 시 1/3과 2/3를 나타낼 때 쓰는 표																																										
	:::	살_당	가곡 반주 시 2/3와 1/3을 나타낼 때 쓰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自	::	자출	검지나 엄지로 줄을 치거나 뜯는 표																																										
小	::	소지	소지로 뜯는 표(가곡에 해당한다)																																										
ㅁ	:::	상하 농현	그 음을 위에서 아래로 떠는 표																																										
~~~~~	::	가는 농현	1/4음 꺾어서 소리 낸 후 가늘게 떠는 표																																										
^	:::	꺾기	꺾는 음. 본음보다 반음 높이 내는 표																																										
ㄱ	:::	제자리꺾기	본음보다 한 음 높이 낸 후 제 음을 속히 내는 표																																										
<p>3. 정악 대금에 쓰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1) 정악 대금을 연주할 때 쓰이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숨표(<) ::</p> <p>쉽표(△) ::</p> <p>늘임표(ㅂ·ㅅ) ::</p> <p>끊는 표(▼) ::</p> <p>추성표(ㄴ) ::</p> <p>퇴성표(ㄹ) ::</p>	(삭제)																																												

현행	개정후
<p>상성표(ㄹ) ::::</p> <p>내림표(ㄷ) ::</p> <p>특강표(C) ::</p> <p>덧길이() ::::</p> <p>반길이(.) ::::</p> <p>음을 굽게 떠는</p> <p>표(ㄴ) ::</p> <p>음을 가늘게 떠는 표(농음표)</p> <p>흔드는 표(ㄴ) ::</p> <p>2) 정악 대금을 연주할 때, 장식음들을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p> <p>니레(ㄴ) :::: 니라(人) ::::</p> <p>노네(7) :::: 너네(7) ::::</p> <p>노니로(ㄴ) :::: 나니르(ㄷ) ::::</p> <p>드로니르(ㄴ) :::: 나니나(3) ::::</p> <p>나느나(ㄴ) :::: 느니르(ㄴ) ::::</p> <p>3) 정악 대금을 연주할 때, 시가를 내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p> <p>니(ㄴ) :::: 리(ㄴ) ::::</p> <p>노(ㄴ) :::: 로(ㄴ) ::::</p> <p>니나(ㄴ) :::: 느나(ㄴ) ::::</p> <p>니르(ㄴ) :: 노라(ㄴ) ::::</p> <p>4. 단소를 연주할 때 쓰이는 기호들은 정악 대금을 연주할 때 쓰이는 기호를 적는 방법에 준해서 적되, 단소 연주에만 쓰이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p>	

현행	개정후
<p> <u>좀 느리게(ㄱ • ㄴ) ::::</u> <u>좀 속하게(ㄱ • ㅅ) ::::</u> <u>점점 느리게(ㄱ • ㅅ • ㄴ) ::::</u> <u>점점 속하게(ㄱ • ㅅ • ㅅ) ::::</u> <u>본래 속도로(ㄴ • ㅅ) ::::</u> <u>강하게() ::::</u> <u>약하게() ::::</u> <u>점약표() ::::</u> <u>겹미는 표() ::::</u> <u>겹홀림표() ::::</u> <u>격음표() ::::</u> </p> <p> <u>5. 장구 장단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u> </p> <p> <u>덩() :: 쿵() ::</u> <u>덕() :: 기덕() ::</u> <u>더러러() :: 더(•) ::</u> <u>궁() :: 평() ::</u> <u>궁() :: 구궁() ::</u> <u>떠러러() :: 덕더(!) ::</u> <u>덕덕(!) ::</u> </p> <p> <u>6. 팽과리 연주에 쓰이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u> </p> <p> <u>깡() :: 지() ::</u> <u>그랭() :: 깟() ::</u> <u>깨-스() ::::</u> </p>	

현행	개정후																																																
7. 북 연주에 쓰이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동(○) :: 두(◻) :: 독(●) :: 딱(●) :: 두동(◻) ::																																																	
8. 징 연주에 쓰이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징(○) :: 지(◻) :: 짓(●) ::																																																	
(신설)	제16항 해금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잉어질 표</td><td>본음에서 본음을 속히 끊어 치고 아래 음을 내는 표</td></tr><tr><td></td><td>::</td><td>쉽표</td><td>시가만큼 쉬라는 표</td></tr><tr><td></td><td>:::</td><td>흔드는 표</td><td>음을 가늘게 흔들어 내는 표</td></tr><tr><td></td><td>:::</td><td>늘임표</td><td>본래의 시가보다 2배 이상 늘이는 표</td></tr><tr><td></td><td>:::</td><td>끊는 표</td><td>그 음만 소리를 짧게 끊거나, 잠깐 쉬는 표</td></tr><tr><td></td><td>::</td><td>미는 표</td><td>본음에서 그 음을 위로 밀어 올리는 표</td></tr><tr><td></td><td>::</td><td>흘림 표</td><td>본음에서 그 음을 아래로 흘러내리는 표</td></tr><tr><td></td><td>:::</td><td>요성 표</td><td>본음과 한 음 위 음을 두 번 당겼다 놓았다 하는 표</td></tr><tr><td></td><td>::</td><td>굴림 표</td><td>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눌러서 내는 표</td></tr><tr><td></td><td>::: ::: :::</td><td>반복 표</td><td>표가 붙은 자리에서 표까지 반복하라는 표</td></tr><tr><td></td><td>:::</td><td>덧길이·반길이 표</td><td>이 표가 붙는 자리에 따라</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잉어질 표	본음에서 본음을 속히 끊어 치고 아래 음을 내는 표		::	쉽표	시가만큼 쉬라는 표		:::	흔드는 표	음을 가늘게 흔들어 내는 표		:::	늘임표	본래의 시가보다 2배 이상 늘이는 표		:::	끊는 표	그 음만 소리를 짧게 끊거나, 잠깐 쉬는 표		::	미는 표	본음에서 그 음을 위로 밀어 올리는 표		::	흘림 표	본음에서 그 음을 아래로 흘러내리는 표		:::	요성 표	본음과 한 음 위 음을 두 번 당겼다 놓았다 하는 표		::	굴림 표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눌러서 내는 표		::: ::: :::	반복 표	표가 붙은 자리에서 표까지 반복하라는 표		:::	덧길이·반길이 표	이 표가 붙는 자리에 따라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잉어질 표	본음에서 본음을 속히 끊어 치고 아래 음을 내는 표																																														
	::	쉽표	시가만큼 쉬라는 표																																														
	:::	흔드는 표	음을 가늘게 흔들어 내는 표																																														
	:::	늘임표	본래의 시가보다 2배 이상 늘이는 표																																														
	:::	끊는 표	그 음만 소리를 짧게 끊거나, 잠깐 쉬는 표																																														
	::	미는 표	본음에서 그 음을 위로 밀어 올리는 표																																														
	::	흘림 표	본음에서 그 음을 아래로 흘러내리는 표																																														
	:::	요성 표	본음과 한 음 위 음을 두 번 당겼다 놓았다 하는 표																																														
	::	굴림 표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눌러서 내는 표																																														
	::: ::: :::	반복 표	표가 붙은 자리에서 표까지 반복하라는 표																																														
	:::	덧길이·반길이 표	이 표가 붙는 자리에 따라																																														















현행	개정후			
				시가를 가감하는 표
	C	:::	국 치는 표	그 음만을 특히 세게 국 치는 표
	^	::	니레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人	::	니라	두 음 위 음을 짧게 내고, 본음을 내는 표
	7	::	노네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ㄴ	::	노니로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짧게 내는 표
	ㄱ	::	나니레 다니레	한 음 아래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빼는 표	활대를 좌에서 우로 당기는 표
	—	:::	넣는 표	활대를 우에서 좌로 미는 표
	ㄷ	:::	무명지 표	식지를 무명지 위치로 내려 잡는 표
	└	:::	제자리표	내려 잡았던 위치에서 다시 제자리로 올려 잡는 표
	ㄴ	::	니	한 음 위 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ㄴ	::	리	두 음 위 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ㄴ	::	노	한 음 아래 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ㄴ	::	니나	한 음 위 음과 본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ㄴ	::	느나	한 음 아래 음과 본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ㄴ	::	니르	한 음 위 음과 두 음 위 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







현행	개정후																																											
				는 표																																								
		::	노라	한 음 아래 음과 두 음 아래 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	니네라	두 음 위 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시가로 나누어 내는 표																																								
		:::	나니나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	나느나	본음,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3등분하여 내는 표																																								
(신설)	<div>제3절 관악기 기호</div> <div>제17항 관악기 공통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div>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로</td><td>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로'</td><td>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니</td><td>한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니'</td><td>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니나</td><td>한 음 위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느나</td><td>한 음 아래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느니</td><td>한 음 위,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노라</td><td>한 음 아래,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니레나</td><td>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로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로'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	한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나	한 음 위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나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니	한 음 위,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노라	한 음 아래,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레나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로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로'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	한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나	한 음 위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나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니	한 음 위,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노라	한 음 아래, 두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레나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현행	개정후																																															
	<table><tr><td></td><td>⋮⋮</td><td>니로나</td><td>한 음 위,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느나나</td><td>한 음 아래, 본음, 한 음 위,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r><td></td><td>⋮⋮</td><td>느니르나니</td><td>한 음 위,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td></tr></table>					⋮⋮	니로나	한 음 위,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나나	한 음 아래, 본음, 한 음 위,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니르나니	한 음 위,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니로나	한 음 위,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나나	한 음 아래, 본음, 한 음 위, 본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	느니르나니	한 음 위, 두 음 위, 한 음 위, 본음, 두 음 위 음을 표기된 시가만큼 내는 표																																													
(신설)	<p>제18항 관악기 공통 장식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p>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니레</td><td>한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td></tr><tr><td></td><td>⋮</td><td>니라</td><td>두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td></tr><tr><td></td><td>⋮</td><td>노네</td><td>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td></tr><tr><td></td><td>⋮</td><td>너네</td><td>두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td></tr><tr><td></td><td>⋮</td><td>노니로</td><td>본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r><td></td><td>⋮</td><td>네로네</td><td>본음,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r><td></td><td>⋮</td><td>나니르</td><td>한 음 아래,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r><td></td><td>⋮</td><td>로니로</td><td>두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r><td></td><td>⋮</td><td>느니-르</td><td>한 음 아래 음, 본음, 한 음 아래 음인데, 한 음 아래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r><td></td><td>⋮</td><td>니루-니</td><td>한 음 위 음, 본음, 한 음 위 음인데, 한 음 위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니레	한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니라	두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노네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너네	두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노니로	본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네로네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나니르	한 음 아래,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로니로	두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느니-르	한 음 아래 음, 본음, 한 음 아래 음인데, 한 음 아래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니루-니	한 음 위 음, 본음, 한 음 위 음인데, 한 음 위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니레	한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니라	두 음 위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노네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너네	두 음 아래 음을 짧게 먼저 내는 표																																													
	⋮	노니로	본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네로네	본음, 한 음 아래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나니르	한 음 아래,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로니로	두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느니-르	한 음 아래 음, 본음, 한 음 아래 음인데, 한 음 아래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	니루-니	한 음 위 음, 본음, 한 음 위 음인데, 한 음 위 음들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현행	개정후																												
	<table><tr><td></td><td></td><td>느로니르</td><td>본음, 한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td></tr><tr><td></td><td></td><td>나니나</td><td>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td></tr><tr><td></td><td></td><td>나느나</td><td>본음,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td></tr></table>			느로니르	본음, 한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나니나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나느나	본음,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느로니르	본음, 한 음 아래 음, 한 음 위 음은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나니나	본음, 한 음 위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나느나	본음, 한 음 아래 음, 본음을 똑같은 길이로 내는 표																										
(신설)	<p>제19항 대금·단소·소금 전용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숨표</td><td>숨을 쉬라는 표로 짧은 순간에 빨리 숨을 마신다.(숨표의 길이는 앞의 중(仲)에 포함됨)</td></tr><tr><td></td><td></td><td>쉽표</td><td>시가(時價)만큼 쉬는 표</td></tr><tr><td></td><td></td><td>끊는 표</td><td>그 음을 1/2 길이로 짧게 끊는 표</td></tr><tr><td>,</td><td></td><td>튀김 표</td><td>혀로 통기거나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하며, 주문이 없는 한 제 박의 길이로 연주한다.</td></tr><tr><td>S</td><td></td><td>떠이어 표</td><td>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 임무(淋濼)를 빠르게 앞꾸밈음으로 붙이고 임(淋)을 연주한다.</td></tr><tr><td>∨</td><td></td><td>특강 표</td><td>그 음을 특히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숨표	숨을 쉬라는 표로 짧은 순간에 빨리 숨을 마신다.(숨표의 길이는 앞의 중(仲)에 포함됨)			쉽표	시가(時價)만큼 쉬는 표			끊는 표	그 음을 1/2 길이로 짧게 끊는 표	,		튀김 표	혀로 통기거나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하며, 주문이 없는 한 제 박의 길이로 연주한다.	S		떠이어 표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 임무(淋濼)를 빠르게 앞꾸밈음으로 붙이고 임(淋)을 연주한다.	∨		특강 표	그 음을 특히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기호	점형	명칭	설명																										
		숨표	숨을 쉬라는 표로 짧은 순간에 빨리 숨을 마신다.(숨표의 길이는 앞의 중(仲)에 포함됨)																										
		쉽표	시가(時價)만큼 쉬는 표																										
		끊는 표	그 음을 1/2 길이로 짧게 끊는 표																										
,		튀김 표	혀로 통기거나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하며, 주문이 없는 한 제 박의 길이로 연주한다.																										
S		떠이어 표	손가락으로 지공을 치듯이 연주, 임무(淋濼)를 빠르게 앞꾸밈음으로 붙이고 임(淋)을 연주한다.																										
∨		특강 표	그 음을 특히 강하게 연주하라는 표.																										
(신설)	<p>제20항 피리 악상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서침 표</td><td>피리의 가장 특징적인 주법 중의 하나로, 일명 “시례표”라고도 한다.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 갈 때, 또는 아래 음에서 위</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서침 표	피리의 가장 특징적인 주법 중의 하나로, 일명 “시례표”라고도 한다.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 갈 때, 또는 아래 음에서 위																				
기호	점형	명칭	설명																										
		서침 표	피리의 가장 특징적인 주법 중의 하나로, 일명 “시례표”라고도 한다.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 갈 때, 또는 아래 음에서 위																										

현행	개정후																																			
	<table><tr><td></td><td></td><td></td><td>음으로 올라갈 때, 서침표가 기보되어 있는 곳에서 서(reed)를 혀로 강하게 쳐서 표현하는 부호이다.</td></tr><tr><td>6</td><td>⋮⋮</td><td>시루 표</td><td>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올 때 중간 음정을 강하게 지고 내려온다.</td></tr><tr><td>9</td><td>⋮</td><td>루러 표</td><td>일종의 굴림표로서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올라갈 때, 혹은 같은 음을 연주할 때도 사용되는 연주법이다.</td></tr><tr><td></td><td>⋮⋮</td><td>요성 표</td><td>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한번 요성을 한다.</td></tr><tr><td></td><td>⋮⋮</td><td>겹요성 표</td><td>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두 번 요성을 한다.</td></tr><tr><td></td><td>⋮⋮</td><td>하음 표</td><td>표기되어 있는 음을 낮게 내리는 표</td></tr></table>							음으로 올라갈 때, 서침표가 기보되어 있는 곳에서 서(reed)를 혀로 강하게 쳐서 표현하는 부호이다.	6	⋮⋮	시루 표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올 때 중간 음정을 강하게 지고 내려온다.	9	⋮	루러 표	일종의 굴림표로서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올라갈 때, 혹은 같은 음을 연주할 때도 사용되는 연주법이다.		⋮⋮	요성 표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한번 요성을 한다.		⋮⋮	겹요성 표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두 번 요성을 한다.		⋮⋮	하음 표	표기되어 있는 음을 낮게 내리는 표								
			음으로 올라갈 때, 서침표가 기보되어 있는 곳에서 서(reed)를 혀로 강하게 쳐서 표현하는 부호이다.																																	
6	⋮⋮	시루 표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올 때 중간 음정을 강하게 지고 내려온다.																																	
9	⋮	루러 표	일종의 굴림표로서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올라갈 때, 혹은 같은 음을 연주할 때도 사용되는 연주법이다.																																	
	⋮⋮	요성 표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한번 요성을 한다.																																	
	⋮⋮	겹요성 표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밀고 빼면서 두 번 요성을 한다.																																	
	⋮⋮	하음 표	표기되어 있는 음을 낮게 내리는 표																																	
(신설)	<div>제4절 타악기 기호</div> <div>제21항 장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div>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덩</td><td>합장단</td></tr><tr><td></td><td>⋮</td><td>궁, 구</td><td>북편</td></tr><tr><td></td><td>⋮</td><td>덕, 딱, 따</td><td>채편</td></tr><tr><td></td><td>⋮</td><td>더러러, 다르르</td><td>채 굴림</td></tr><tr><td></td><td>⋮</td><td>기덕, 기닥, 기딱</td><td>겹채</td></tr><tr><td></td><td>⋮</td><td>더, 다</td><td>채찍음</td></tr><tr><td></td><td>⋮</td><td>구궁, 구구</td><td>겹궁</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덩	합장단		⋮	궁, 구	북편		⋮	덕, 딱, 따	채편		⋮	더러러, 다르르	채 굴림		⋮	기덕, 기닥, 기딱	겹채		⋮	더, 다	채찍음		⋮	구궁, 구구	겹궁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덩	합장단																																	
	⋮	궁, 구	북편																																	
	⋮	덕, 딱, 따	채편																																	
	⋮	더러러, 다르르	채 굴림																																	
	⋮	기덕, 기닥, 기딱	겹채																																	
	⋮	더, 다	채찍음																																	
	⋮	구궁, 구구	겹궁																																	

현행	개정후			
		⋮	국	궁편 치고 막기
(신설)	제22항 북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등, 덩	울음을 열어 친다.
		⋮	딱	테를 친다.
		⋮	두둥 두둥	감아 친다.
		⋮	두르르르	굴려서 뒤를 흘린다.
		⋮	더	울음을 약하게 열어 친다.
(신설)	제23항 꿩파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갱, 갠, 개, 껏, 캐	울음을 열어 친다.
		⋮	객, 갓, 깨, 꺾	울음을 잡아 친다.
		⋮	지갠, 지갱, 그라	위에서 아래로 감아 친다.
		⋮	지갠, 지갱, 지갓	아래에서 위로 감아 친다.
		⋮	그랑, 당그랑, 지르-갱	머릿박을 강하게 감아 친다.
		⋮	개르르르... 개르르...	굴려 치고 뒤를 흘린다.
	∨	⋮	옛, 웃, 뜻	쉬는 부분
		⋮	지레꺾, 은지독, 따닥	막음질
		⋮	개갠지	노는 가락
(신설)	제24항 징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현행	개정후																																				
	<table><tr><th>기호</th><th>점형</th><th>명칭</th><th>설명</th></tr><tr><td></td><td>⠠⠠</td><td>징</td><td>울음을 열어 친다.</td></tr><tr><td></td><td>⠠⠠</td><td>짓</td><td>울음을 막아 친다.</td></tr></table>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징	울음을 열어 친다.		⠠⠠	짓	울음을 막아 친다.																								
기호	점형	명칭	설명																																		
	⠠⠠	징	울음을 열어 친다.																																		
	⠠⠠	짓	울음을 막아 친다.																																		
(신설)	<p>제25항 말붙임새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p> <p>1. 말붙임새는 해당 타악기 기호를 사용한다.</p> <p>2. 말붙임새의 길이를 나타내는 칸수를 표기할 때에는 말 붙임새 뒤에 수표 없이 해당 숫자를 한 단 내려 적는다.</p> <div><div>></div><table><tr><td>⓪</td><td></td><td></td><td>⓪</td><td></td><td> </td><td>⓪</td><td> </td><td></td></tr><tr><td>윙</td><td></td><td></td><td>윙</td><td></td><td>윙</td><td>윙</td><td>윙</td><td></td></tr><tr><td colspan="9">⠠⠠⠠⠠⠠⠠⠠⠠⠠</td></tr><tr><td colspan="9">⠠⠠⠠⠠⠠⠠⠠⠠⠠</td></tr></table></div>	⓪			⓪			⓪			윙			윙		윙	윙	윙		⠠⠠⠠⠠⠠⠠⠠⠠⠠									⠠⠠⠠⠠⠠⠠⠠⠠⠠								
⓪			⓪			⓪																															
윙			윙		윙	윙	윙																														
⠠⠠⠠⠠⠠⠠⠠⠠⠠																																					
⠠⠠⠠⠠⠠⠠⠠⠠⠠																																					

[한국 음악 점자 규정 해설서 집필진]

최규봉(前 대전맹학교 교장)

송현정(대전맹학교 점역사)

이인환(前 부산맹학교 점역사)

이정훈(퓨전국악연대 가락타래 무대연출 감독)

장귀희(대전맹학교 점역사)

[2017 한국 점자 규정] 한국 음악 점자 규정 해설

2020년 1월 31일 인쇄

2020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 소강춘

발행처 :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 화 : 02-2669-9694

인 쇄 : 도서출판 점자

담당: 김민정(특수언어진흥과)